

# 노들바람

이야기 구성

02 노들바람을 여는 창

**| 특집1 | 2016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 03 차차차 단원, 주원과 혜진의 이야기
- 06 나는야 '폐지당'의 당당한 비례대표
- 08 불편하겠지만 불편해야 할 이야기
- 11 희망의 '노란들판'을 함께 꿈꾸어요
- 14 국현 씨를 그리며

**| 특집2 | 노들의 벗, 김호식을 보내며**

- 17 국회의원들에게 드리는 보고
- 22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사람, 김호식
- 25 나의 깃발
- 27 **[형님 한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했습니다
- 29 **[고병권의 비마이너]** 희망 없는 인문학

- 33 낙산 발정(發程)
- 35 **[노들아 안녕]** 노들에서 '활동하는' 필수입니다
- 37 **[노들아 안녕]** You Only Live Once!
- 39 **[노들아 안녕]** 꽃동네에서 나와 노들로
- 41 안녕하세요, 『비마이너』 기자 박정수입니다
- 44 노란들판의 꿈

- 46 **[교단일기]** 청솔 과학반이 일구는 노란들판
- 48 노(怒)치어나! 놓치않아-!!
- 50 센터판의 독립과 이사, 그 새로운 출발점에서
- 54 수연 언니 외박기
- 58 **[자립생활을 알려주마]** 자립생활을 향한 험난한 여정
- 62 **[나는 활동보조인입니다]** 익숙해지는 시간

- 64 노들야학 후원마당 '밥상이 나르샤'를 마치고
- 66 세월호 참사 2주기 '기억식'과 '진실을 향한 걸음'
- 68 우리 모두 내생전의 친구가 되어봅시다
- 71 도대체 부정수급이 무어란 말이나
- 74 **[오 그대는 아름다운 후원인]** 탈시설 장애인의 벗,  
이종각 선생님을 추억하며
- 79 고마운 후원인들



노들바람의 '노들'은 노란들판의 준말입니다. 농부의 노동이 녹아난 들판에  
 넘실대는 결실들을 뜻하는 말로 노들인 모두 대지를 일구는 농부라 생각합니다.  
 시퍼런 '경쟁'의 도구로 차별과 억압의 들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연대'로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 넘쳐나는 노란들판을,  
 그 대인적 세계를 꿈꾸는 농부들 말입니다.

**제 108호 2016-07**

만든곳 (사)노들노들장애인야학·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자립공장「노란들판」  
 장애인문화예술「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발행인 박경석 편집인 김도현 편집위원 강미진 김명학 김유미 김진수 박세영 조아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140 유리빌딩 2층  
 전화 (02)766-9101~6 전송 (02)2179-9108  
 홈페이지 www.nodeul.or.kr  
 전자우편 nodlbaram@gmail.com  
 디자인·제작 (주)크리에이티브 다다(518-1571)

\*「노들바람」은 크리에이티브 다다에서 디자인을 기부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 노들바람을 여는 창

이번 『노들바람』 108호에 실린 글들에서는 ‘○○를 그리며’, ‘○○를 보내며’, ‘○주기’, ‘○○를 추억하며’와 같은 문구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띕니다. 누군가의 죽음과 빈자리에 관한 이야기들. 4월 초 어느 날, 저희들은 탈시설 장애인들의 벗이자 노들의 키다리 아저씨였던 평원재단 이종각 이사장님의 부고를 접해야 했고, 같은 날 새벽, 노들야학에서 10년 넘게 같이 공부하고 술 마시고 투쟁하며 지내 온 호식이 형마저 너무나 황망하게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노들의 식구들은 세월호 2주기 기억식에 함께 했고, 420투쟁문화제는 국현이 형과 유성기업 해고 노동자 한광호 열사를 추모하는 자리로 만들어졌으며, 4월 23일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故 육우당 13주기 추모문화제’에서도 국현이 형의 억울한 죽음을 함께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얼마 전 7월 12일 저녁, 노들야학에서는 『다시 봄이 올 거예요』 함께 읽기 마지막 순서, ‘장애의 눈으로 함께 읽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노들야학의 철학 교사인 고병권 선생님께서 도입 발제를 맡아 주셨는데요, 선생님은 준비해 오신 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비어-있음’은 사실은 ‘있음’의 한 방식”이며, “망자의 빈자리, 망자의 침묵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중대한 발언일 때, 다시 말해 진실의 자리이고 목소리일 때”, “이때 이 빈자리를 없애는 것은 진실을 매장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요. 그리고 “망자의 부재와 침묵이 현실에 대한 고발일 때, 우리가 망자의 죽음에서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때, 우리의 건강은 현실의 승인이 아니라 현실의 변혁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요.

시작할 때는 없었지만, 시작한 이후 열두 개의 영정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 공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장이 이제 곧 4년을 맞게 됩니다. 우리 곁을 떠나간 그 소중한 이들의 빈자리가 삭제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건강한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목소리 높이고 싸워야겠습니다. 『노들바람』의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특집1\_2016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 차차차 단원, 주원과 혜진의 이야기

한명희

노들야학에서, 그리고 광화문 지하역사 2층에서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이 함께 살기 위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명희예요. 놀러 와요.

\*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 전국순회투쟁단 ‘차차차(차별을 걷어차는 부릉부릉 자동차)’ 4박 5일의 그들만의 유랑 기록, 명희가 노들야학의 주원과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혜진의 이야기를 옮깁니다.

2014년 추운 겨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에서는 전국 순회 투쟁단 ‘차차차’를 꾸려 9박 10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우리의 내용을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만덕, 쌍차, 코오롱 등과 연대활동을 하였지요. 이 어마어마한 품과 공을 들여 함께 하는 ‘차차차’ 시즌2가 올해 다시 출동하였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간 전국을 돌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연대활동과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였지요. 까마득히 지난 줄 알았는데 아직 석 달 정도 밖에 시간이 안 흘렀네요. ‘차차차’는 ‘차’별을 걷어‘차’는 부릉부릉 자동차 ‘차’의 줄임말입니다. 이번 ‘차차차’는 서울·경기·인천 지역 활동가 20여 명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출정식을 한 후 출발을 하였고요, 전국



에 있는 동지들을 만나며 그 세력을 불러왔지요. 노들에서도 4박 5일간 함께 한 이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노들야학의 주원과 노들센터의 혜진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하시죠?

◦ 주원의 이야기 ◦

노들야학 낮 수업을 함께 하는 주원은 아침 10시 정도면 야학에 와서 온갖 신문을 읽은 후 자신이 습득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런 제도가 바뀌었다더라, 이런 서비스가 생겼으니깐 나도 신청을 해야겠다, 등등. 마침 야학에 일찍 와 있던 주원과 인터뷰를 하겠다고 해도 동분서



주하며 야학을 돌아다니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질문의 순서와 답이 어디로 통통 튀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각색을 통해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주원은 차차차 시즌1에도 함께 했던 베테랑 참여자입니다. 그의 에피소드는 끝이 없지요. 작년엔 차차차를 무려 9박 10일 동안 다녀왔는데 짐 가방이 어찌 그리 얇을 수가 있었는지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올해의 가방 두께 또한 마찬가지로 이긴 했습니다만.

“날씨가 맑아서 정말 좋았다. 예전에 갔었을 때는 해가 많이 나서 더웠던 적도 있었고 갑자기 눈이 내리기도 했다. 첫 번째 차차차의 밤은 강원도 원주였는데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 숙소를 구하기 마땅치가 않아 모텔에서 함께 잠을 청했다.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은 4일차 대전에 갔었을 때 유인물을 돌렸던 것이다. 노들야학에서 대전 지역으로 40명의 사람들이 함께 왔다. 힘이 났던 거 같다. 장애등급제의 중/경증 단순화를 규탄하기 위해 세종시 보건복지부로 가서 투쟁을 했는데, 복지부를 정말 오랜만에 가봤고

세종시라는 곳은 정말 사람이 없는 곳 같았다. 나는 유인물을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이 재미있다. 차차차에서는 주로 야학에서도 그러하듯 분리수거를 열심히 했다. 그리고 아쉬웠던 것이 하나 있는데, 경북도청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을 때 경찰이랑 너무 많이 싸웠다. 서울에서도 어디에서도 경찰이랑 싸우는 것이 나는 싫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야학에 10년을 다녔는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투쟁이 내가 제일 오래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꼭 없앨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내년에도 차차차를 한다면 난 꼭 갈 거다.”

◦ 혜진의 이야기 ◦

혜진은 자립생활을 위해 종로구에 소재한 평원재에 입주하여 살다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1년 조금 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신입 활동가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권익옹호 활동과 동료상담. 작년에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올해부터 정식 활동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

지 꿈도 많고 고민도 많아요. 그리고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차차차 4박 5일 동안 저는 발언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첫날 원주에서, 그리고 세종시에서 기만적인 장애등급제 중/경증 단순화 규탄 발언을 했었지요. 그때 간단한 퍼포먼스를 했어요. 장애 등급 1급에서 6급까지의 등급을 매긴 사람들이 있었고, 비옷을 싹 벗으면 중증/경증으로 단순화되는 퍼포먼스였죠. 별로 달라진 거 없는 복지부의 정책을 규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등급 중 저도 한 사람이 되어 발언을 했어요. 아쉬웠던 것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넘어오자 너무 당황한 거 같아요. 제가 발언을 해본 경험이 많이 없거든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하고 노들에만 있다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었던 게 차차차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거 같아요. 아쉬웠던 것은 이후에도 따로 만나고 하면 좋을 텐데 더 친하게 지내지 못했던 거요. 뒤풀이나 술 한 잔을 따로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네요.

재미있었어요, 정말. 그리고 사실 생각보다 안 힘들었어요. 상상했을 때는 4박 5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자고 일정이 정말 빡빡할 거 같았거든요. 아, 그리고 함께 갔던 이들에게 내년에도 꼭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센터 활동으로 인해서 수급자격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2년의 유예 기간을 가지고 있어서, 이후에 제가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차차는 꼭 가고 싶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집회현장에서 자주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광화문 지하역사에는 여전히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농성이 진행 중입니다. 올해 벌써 4년이 되었지요. 차차차 시즌1에도, 차차차 시즌2에도 함께했던 그 연대의 농성장들 중에서는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다시 공장으로 복귀한 곳도, 여전히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싸우는 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만덕의 공간은 철거가 시작되어 한치 앞도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전히 뜨겁고 여전히 시린 그 계절들이 몇 회를 반복하며 지나가도 사람은 그곳에 그대로 있습니다. 차별을 견어차는 부릉부릉 자동차에 꼬깃꼬깃 접어 넣는 짐들처럼 함께 한 추억도 꼬깃꼬깃 접어 보물 상자 안에 넣어두려 합니다. 그리고 함께해야 할 곳들, 다시 찾아가야 할 곳들에 우리는 언제나 부릉부릉 하며 갈 겁니다. 그렇게 차차차 시즌3의 이야기도 시작되었지요?





【특집1\_2016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 나는야 '폐지당'의 당당한 비례대표

이상우

1982년생 전주에서 출생. 충북 음성 꽃동네 희망의집에서 23년간 생활함. 현재 노들장애인야학 학생이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활동가로 활약 중.



지난 2월 하순 어느 날, 나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평원재 간담회를 마치고 권익옹호 활동가 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교육을 받던 중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당' 당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었다. '폐지당'은 정식 정당이 아니지만, 20대 총선 기간 동안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비롯하여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모든 것들을 폐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폐지당 창당대회는 3월 10일 목요일, 시민청 바스라홀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총회에 앞서 열렸다. 많은 장애인들과 활동가들이 모였고, 기자들도 많았다. 나는 우리 폐지당의 비례대표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고, 첫 번째로 연설을 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폐지당 비례대표 후보로 활동하게 된 이상우라고 합니다. 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함께 합시다!" 이 말을 끝으로 제자리로 돌아왔다.

며칠 후, 우리 폐지당 비례대표들과 당원들은 경북구역 부근에서 첫 유세와 선전전을 가졌다. 나도 비례대표 후보로서 아침 8시

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함께 합시다!

부터 오후 3시까지 행단보도를 왔다 갔다 하며 열심히 우리의 요구를 외쳤다. 나는 평소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다. 그래서 첫 유세날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아침도 먹지 못한 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가야만 했다.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가 왜 나쁜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홍보물과 명함을 나누어주고, 시민들도 함께 동참해 달라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광화문에서 2차 선전전을 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홍보물과 명함을 나누어 주고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장애등급제가 필요하고 좋은 거 아니냐고 계속 반문을 하기도 했다.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니 잘 모르는 것이다. 그렇지만 장애등급제는 정말 나쁜 것이다.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척 하면서 다시 중증/경증으로 나누고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 폐지당 활동은 끝이 났지만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폐지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특집1\_2016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 불편하겠지만 불편해야 할 이야기

우리는 서울시 자치구 순회투쟁을 왜 해야만 했을까?

민아영

노들야학의 교사이고 현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누워서 밥을 먹고, 영화를 보는 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추리소설과 로맨스소설을 읽는 것 또한 굉장히 좋아합니다.  
명 때리고 하늘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잘하지 못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햇빛이 강하지 않은 날, 야외에서 눈 감고 드러눕는 걸 좋아합니다.

지난 2015년, 정부에서는 복지재정을 효율화하겠다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옥죄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복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을 때 이를 색출해 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누군가는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내용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란 예산을 미리 정해놓고 나서 그 범위를 넘어가버린 이들이었습니다. 사회적 구조에 의해 열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줄 세우고는 그 안에서 누가 누가 살기 딱딱한 가를 저울질하는 것이죠.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주체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특히 기초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지원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와 필요한 부

분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을 증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보면 중앙정부의 지침을 운운하며 장애인의 생존권인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애인운동의 현주소는 아직까지도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 활동보조서비스, 주거권, 소득 등을 보장하지 않는 지역사회 내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것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이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대투쟁'을 선포하였습니다.

강남구를 시작으로 자치구 순회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의 예산안들을 들여다보면, 일회성 행사에도 몇 천만 원씩 사용하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은 2천만 원 남짓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민들의 문화적 향유를 위한 행사에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날 치르는 관변 행사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면서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예

산을 지원하는 데에는 어찌 그리 웅색한지요. 장애인에 대한 '동정과 시혜'의 이데올로기를 자치구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12개의 자치구에 대한 순회투쟁을 진행하다 보니, 많은 공무원들을 만나고 구청장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늘 비슷했습니다.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하여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부족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산 문제 운운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실상 우리의 요구들에 소요되는 예산은 각 자치구 전체 예산의 1%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논의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들이 너무도 기본적이고 당연히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었음에도 말입니다. 이에 우리의 '순회

투쟁'은 단순히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예산의 편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 자체를 뜯어고치는 활동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보면 수많은 욕설을 듣게 됩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우리의 외침이 과격해보이거나 뜨악스러우니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은 거세된 채, 잠시의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욕설로 반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두통과도 같은 존재로 느껴졌던 것이라면, 저는 한편으로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아픔을 알고도 말하지 못하는 사회, 타인의 아픔을 경시하는 사회는 그 자체로 '아픈' 사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투쟁이 그들에게 두통이 되어 "우리 사회가 많이 아

프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경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치구 순회 투쟁은 장애인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공공기관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래에서부터 조금씩 지평을 넓혀가다 보면, 좀 더 높은 곳을 향한 투쟁에서도 단단한 힘을 모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냈던 그 소중한 36일. 자치구 순회 투쟁이 마무리 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필요하다면 우리는 또 언제든지 우리의 이야기를 하러 갈 것입니다. 동정과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때까지, 투쟁입니다.



【특집1\_2016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 희망의 '노란들판'을 함께 꿈꾸어요

이상엽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강남역에서 한 무고한 여성이 희생당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합니다. 혐오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혐오의 문제로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 소외가 그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혐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 경쟁과 효율의 사회에서 도태된 사회 구성원들의 왜곡된 표현이 혐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장애인권인의 문제도 사회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풀어나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힘을 만들어가는 진보적 문화공동체 중의 하나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제 신상을 밝히고 싶습니다. 지독한 생활고에 시달리

고 사회적으로는 격동의 80년대를 보낸 청년은 대학 졸업 무렵 사회적 역할을 고민했습니다. 경제활동과 가치지향적인 개인 성향을 고민했습니다. 비장애대학생인 청년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장애우대학'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장애와 관련된 사회적 삶을 좀 더 구체화하고 싶었습니다. 20여년 넘게 베타이를 맨 회사원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그 관심을 구체적인 역할로 풀어내고자 2016년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직접적인 활동의 시작이 남들보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에 의미를 새기며 천천히 그리고 열심히 앞을 향해 가고 싶습니다.

올해 열네 번째로 진행된 서울장애인인권영화





제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장애인권 감수성을 기본으로 여타 영화제와 차별화하며, 독자적 영역을 구축해 왔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에서 장애인의 권리로 향해왔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그린라이트를 켜자-Turn on the Rights'라는 주제로 4월 20일에서 23일까지 광화문광장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슬로건으로 내세운 '그린라이트를 켜자'는 횡단보도의 직진 녹색신호등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 다.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멋진 영화로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든 장애인인권 영화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인권을 이야기했습니다.

개막작으로는 「영우」가, 폐막작으로는 「피플 퍼스트」가 상영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로 성원으로 연인원 5,000여명이 영화제를 찾았습니다. 또 질적인 성장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장애인인권 영화 상영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관객을 만났습니다. 류미례 감독이 연사로 나서 대중영화 속 장애인의 모습과 이미지를 살펴본 '장애 코드로 영화 읽기', 유해정 활동가가 사회를 맡아 장애인운동을 기록해온 활동가들과 함께 진행한 '장애운동과 기록 간담회', 장애인권교육센터 나야와 함께 한 '영화로 만나는 장애와 인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폐쇄 영상 시스템을 도입하여 진행한 '장애인 영화 관람권 체험 및 토크' 등 4개의 부대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영화제는 '지역과 함께 하는 영화제'를 기조로 삼고 대중화를 모색했는데, 그 첫 번째로 영화제 기간인 4월 21일 5편의 영화를 성북구에 위치한 성북마을극장에서 상영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후 6개 지역에서 지역 상영회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14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장애인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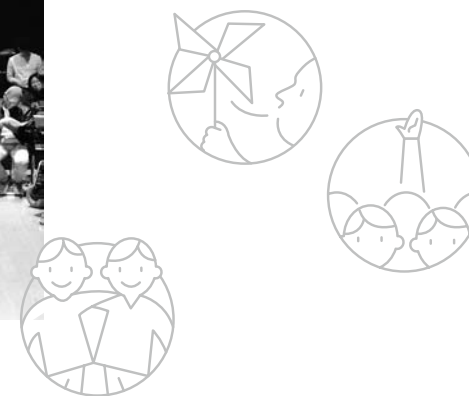
한 올바른 인권감수성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고 나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야할 길이 아직 꽤 멀고도 험난합니다. 신체의 장애가 사회적 삶에서의 장애가 되지 않은 세상은 아직 요원하기에, 영화제도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와 모색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대중적인 코드로 다가서되, 영화의 질적 향상도 계속 모색하겠습니다.

노들장애인야학은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입니다. 노들은 당사자들의 교육 기회를 신장시키는 야학으로서의 역할 이외에 우리 사회의 보편적 장애인인권의 확장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의 좋은

친구이기도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장애인의 친구이자 운동의 주체로 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영화제의 멋진 친구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이 지면을 빌려 개막식과 영화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노들에 감사드립니다.

영화제도 노들이 꿈꾸는 노란들판의 세상처럼,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장애인의 인권이 노란 유채처럼 아름답게 꽃피울 날을 함께 꿈꾸겠습니다. 함께 비를 맞는 동지이자 친구가 되길 희망합니다. 희망의 노란들판을 함께 꿈꿉니다.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장애인의 인권이  
노란 유채처럼 아름답게  
꽃피울 날을 함께  
꿈꾸겠습니다.





【특집1\_2016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 국현 씨를 그리며

현정민

노들야학에서 방송반 특활수업 교사와 더불어 장애인권교육 담당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지난 4월 23일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교육우당 13주기 추모문화제'에 참여했던 노들장애인야학 현정민 교사의 발언 전문입니다. 손으로 직접 쓰였던 원고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들야학 방송반 교사 현정민입니다. 노들장애인야학은 매주 목요일 밤에 특별활동 수업을 합니다. 음악, 연극, 미술, 방송 등 학생들은 각자 관심 있는 특활반 수업을 자유롭게 들읍니다. 차별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예술 창작 활동도 하고 있답니다.

저는 지금은 방송부 교사지만 2년 전에는 미술반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우리는 옹기종기 모여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송국현 씨였습니다. 시설에서 갓 나오셨다는 국현 씨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교실의 닫힌 문을 불편해 하였고, 교실을 여러 번 들락날락 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인사도 나누면서 함께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국현 씨의 장애 정도는 혼자 그림 그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활동 보조인이 없어, 보조 교사가 보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크레파스를 손에 쥐는 것을 다른 도구들보다 편해 하였고, 여러 색깔을 쓰는 것을 좋아 하셨으며, 그림과 글씨를 함께 배치하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그는 웃는 모습이 참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맞추면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다정한 눈 맞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어 장애로 인해 음성언어로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그의 표정과 눈빛으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미술 수업은 참으로 평화롭고 즐거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국현 씨는 활동보조인 없이 활동

가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왜 국현 씨가 3급이지? 노들에서 많은 학생들을 보았는데, 국현 씨처럼 혼자 이동하기도 어렵고 혼자 식사하기도 어려우신 분들은 1급을 받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등급 재심사를 요청 중이라는 말을 듣고, 가까운 시일 내에 다른 노들 학생들처럼 활동보조인과 함께 수업에 참석할 국현 씨의 모습을 기대하며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곤 얼마 후 국현 씨의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난 집 밖에서 사람 있냐고 묻던 집 주인 아주머니의 말에 대꾸 한 번 하지 못하고, 불길이 치솟는 침대 위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채 전신에 화상을 입은 그는 여전히 3급 장애인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군가는 국현 씨의 집에 불이 나고 국현 씨가 집 밖으로 도망 나오지 못한 것을 '사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노들야학의 학생들은 대부분 중증장애인들입니다. 학생 중 누구라도 2014년 4월 13일 그날 밤, 국현 씨와 같은 상황에서 활동보조인 없이 혼자 있었다면 국현 씨와 마찬가지로 도망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노들 학생들과 국현 씨와의 차이는 국현 씨는 3급 장애인이었고 살아남은 이들은 1급 장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고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숫자 3과 1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현 씨를 통해 숫자 3과 1 사이엔 인간다운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공부



하고 싶고, 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국현 씨가 시설에서 나온 이유였습니다. 숫자 3에서 1이 되어야만 공부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숫자 1을 가질 수 없었고 사람답게 살 기회조차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숫자 1을 가지지 못한 수많은 국현 씨는 아슬아슬한 삶의 경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 오는 밤, 지하 단칸방에서 턱밑까지 물이 차올라도 도망갈 수 없고, 추운 겨울 갑자기 꺼져버린 보일러에 몸이 얼어가도 도움조차 요청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삶이 숫자 3과 1 사이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세상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숫자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숫자로 인간다운 삶을 재단할 수도 없습니다. 차별의 숫자들을 지우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장애등급제를 없애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2014년 4월 13일 그날 밤, 활동보조인만 있었다면 엇그제인 목요일 노들 특활반 수업에서 국현 씨를 만나 반갑게 인사 나누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좋은 봄날, 여자 친구와 데이트 때문에 수업에 나올 수 없다며 카톡을 보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장애등급제가 빼앗아 간 국현 씨와의 오늘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함께 모



여서 국현 씨를 기억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차별 없는 세상에서 다시 국현 씨를 부를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국현 씨,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꼭 차별 없는 세상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국현 씨.”

【특집2\_노들의 벗, 김호식을 보내며】

## 국회의원들에게 드리는 보고

노들야학 학생 김호식의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카프카 작) 패러디 작품

나는  
출구의 열쇠를  
얻고 싶습니다.

될 못하는 것의  
장애인이 아니라  
될 해보는  
장애인도 되야겠다  
싶습니다.

장애인들과는  
함께 못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들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경종을  
울려보고  
싶습니다.

지난 4월 7일 새벽 1시경 노들장애인야학 학생인 김호식 씨(44세)가 홀로 집에 있다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뇌병변장애인으로 2001년부터 복지관에 같이 다니던 친구의 소개로 노들장애인야학에 입학해서 최근까지 노들야학에서 많은 일상을 공유해 왔습니다. 야학에 다니기 전까지 초등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그는 노들야학 활동을 통해 철학과 연극에 관심을 쏟고, 장애인권교육강사로도 활동하며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노들 인문학 세미나에 참여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써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고인의 단편 작품을 소개하면서 고인을 추모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드리는 보고」라는 제목의 이 글은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를 패러디 한 것으로, 글 속에는 고인의 생애와 사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013년 5월에 쓰여진 이 글은 노들야학 교사 노규호 씨와 함께 카프카의 작품을 읽고 이를 다시쓰기 하면서 만들어진 작품으로, 4월 11일에 열린 김호식 학생 추모식에서도 낭독되었습니다.





고맙하신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장애인으로 살아온 저의 인생담을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당신들 덕에 가능했는지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당신들이 원하는 장애인에서 이야기꾼이 되었습니다. 착한 장애인으로 살았다면 여까진 못 왔을 것입니다. 고집이 있었으니까 여까지 왔지 고집이 없었다면은 여까지 못 왔을 것입니다. 집에서 주는 거나 받아먹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계속해서 주는 거나 받아먹고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고집이 생겼을 것입니다. 저는 공부하겠다는 고집으로 여까진 왔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다들 늙고 병이 듭니다. 또 어릴 적에는 마찬가지로 부모가 돌봐줘야 합니다. 늙거나 어려서가 아니어도 사람은 누구나 서로가 돌봐줘야 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장애인인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여러분, 당신들이 말하는 장애인의 본능은 당신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만들어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들 앞에서 무슨 보고를 하는 것이 꽤나 우스운 일처럼 보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약간은 쓸쓸한 마음으로 그러나 좋은 이야기구나 하고 당신들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으로 내가 가

장 먼저 배웠던 것은 고통을 참고 무언가에 다가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골촌놈입니다. 그 시골에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게 하는 충을 썼습니다. 그 충은 양복을 차려입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폼 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그 두려움 같은 것에 맞은 놈입니다. 두 방을 맞았는데 두 방 다 가슴에 맞았습니다. 한 방을 맞고 나에게는 꼴통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마치 제가 다른 착한 장애인들과 오로지 고집스럽다는 것으로만 구별된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총알도 가슴에 맞았습니다. 제가 거침없이 웃게 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충을 썼습니다. 그들은 내가 웃을 때마다 아직도 나에게 좋지 못한 습성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웃긴 것을 두고 참는 습성이 좋은 것인줄 모르겠습니다. 제발 충을 쓰는 그들의 변태 같은 습성이 내 웃음을 가지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총에 두 방 맞은 이후 제가 깨어난 곳은 궤짝이었습니다. 이 무렵 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허탈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열아홉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해서 복지관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좋았다면은 술 먹고 노는 게 좋

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공부 진도가 안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오면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술 마시며 놀다가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런 것을 몰랐는데 나중에는 이상하게 얽혀들어갑니다. 1년 정도 다녔는데 내가 공부 진도가 안나가니까 복지관에서는 다른 진도 잘 나가는 애들만 뽑아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시 나에게 궤짝처럼 다가왔습니다. 나는 다시 이 궤짝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궤짝은 돈 가지고 장난을 합니다. 어떤 복지관에 가면 사람들을 가두어놓고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전화해서 관리 같은 것을 해서 복지관으로 들어오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출석체크만 하고 가라고 합니다. 복지관은 그렇게 돈을 받고 함께 공부하지는 못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때 올림픽 공원에 애들을 우르르 풀어놓고 밥 먹고 놀다가 버스를 태우고 복지관에 와서 풀어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싶습니다. 복지관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았을 때 저는 다시 천사 짓을 그만두었습니다.

너의 발가락 사이의 살을 할퀴어보아라. 그래도 너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을 거다. 쇠창살이 너를 거의 두 동강 낼 때까지, 네 등을 거기 대고 눌러라. 그래도 너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을 거다. 그렇게 저에게도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때부터 친



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나는 친구를 따라 야학에 갔습니다. 그때 나에게서는 출구가 친구였습니다.

친구를 따라가며 제가 바랬던 것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는 것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주 곡에서 한 명이 그네에 뛰어 올라, 그네를 구르고, 도약하고, 상대방의 품안으로 날아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 역시 인간의 자유구나 인간들의 자유란 누군가의 즐거움을 위해 저렇게까지 해야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실제로 자유가 있다면 서커스 단원처럼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유가 정말 있으면 저렇게까지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인간들은 자유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자기 뜻대로 남을 다루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간들은 남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엄청나게 이루어야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우월한 것처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함부로 대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함부로는 그 함부로가 아닙니다. 만약에 장애인 시설에서 바깥에서 사람들이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처음 보는 남자를 여자가 닮았다든지 그건 내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나 사회봉사 하러 오는 사람들은 우월감이나 홍보하려고 그 짓을 합니다. 인간들은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두는 것에서 자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친구관계라고 보자면은 자기가 즐거워서 하는 것들을 함께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복지관에서 나왔을 때 야학에 다녔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다



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데모나 시위나 그런 거를 참여하면서 위로와 이해감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같이 술도 마시고, 그랬던 것이 특히 좋았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술을 마시긴 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나은 것은 있었습니다. 차별적이지 않는다는 것, 자기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도 잘 안되고 있긴 한데 마음은 남아있습니다. 또 시위나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기는 하지만 왜 싸우는 지 알 수 있게끔 해준 게 좋았습니다.

그러다 6년 전에 따로 집을 마련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싸우고 안 볼 것처럼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껍껍하고 답답했습니다. 내가 대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저는 조그만 일에 잘 놀라는 성격입니다. 집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많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형에 대해선 나를 두들겨 패고 그런 것이 있어서 약간 반감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TV를 보면서 크게 웃는다고 때리고 술 먹고 들어와서 때리고 그랬던 것이 있습니다.

개졌습니다. 아니, 개긴 것까진 아니고 누나도 시집간 마당에 뭐 내가 집을 나와서 살지 못하라는 법도 없고, 그리고 엄마가 언제 한번 나가 살 집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 그때 집을 나왔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것만도 아닌데 나와서 살아보니까는 살았습니다. 그때는 활동보조인도 없었고 그랬으니까는 자립할

여건도 잘 안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활동보조가 생기고 하니까 나아졌습니다. 생활이라고 조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살짝 살짝 건드려보는 수준인데 그런 수준에서 뭔가를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책 읽고, 만드는 모임도 같이 하고, 복지관도 나가서 운동도 함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출구라고 해야지되나? 나는 출구의 열쇠를 얻고 싶습니다.

자유가 남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었다면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출구들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얻어먹는 것, 당당한 거지근성이라고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해야겠다 싶습니다. 뭘 못하는 것의 장애인이 아니라 뭘 해보는 장애인도 되야겠다 싶습니다. 정부를 대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나의 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그림이나 동화를 만드는 것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장애인들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장애인들과는 함께 못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들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경종을 울려보고 싶습니다.



【특집2\_노들의 벗, 김호식을 보내며】

#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사람, 김호식

≡ 노규호

철학반 교사로 노들장애인야학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혐오담론 세미나에 늦게나마 참여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1년 노들야학 인문학 세미나에서 형을 처음 만났다. 그리고 2012년, 13년, 14년 주말에 활동보조로 형을 만났다. 간혹 빼먹은 적도 있지만 대부분 형을 만나러 갔다. 형을 만났던 그 주말에 “나는 공부하고 싶다”는 말을 거의 매일같이 들었다.

책을 4~5시간 읽고 나면 형은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형도 나도 이불 위로 뺐었다. 형은 소주를 뺐다. 그리고 진지하게 하는 말이 “니체, 애가 진짜 골 때리는 애야. 애가”, “이것도 좀 읽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되냐”였다. 공부하고 싶다는 말은 술 먹자고 하는 말 만큼 자주 들었다. 공부하지 못한 아쉬움의 소리도 자주 들었다. “공부를 해야지. 사람은 공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일찍이 공부를 할 수 없었던 거야.”, “(복



지판에서는) 진도 못 따라오는 사람은 거들떠도 안 보는 거야.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어떤 날은 “책 좀 읽자”며 책 읽기가 소홀해졌다고 나를 다그친 날이 있었다. 또 한 번은 같이 책 읽자고 높은 해방촌 고개를 휠체어를 타고 땀 흘리며 넘어오기도 했다. 야학의 수업 시간 1시간 전에 만나 미리 책을 읽기도 했다. 물론 매일 책만 보았던 것은 아니었다. 술에 밀린 날도 있었다. 그러나 힘을 냈던 날들이 쌓여 니체나 루쉰의 말을 형의 입에서 듣던 날, 나는 공부든 무슨 일든 정해진 능력 대신 의욕과 작은 용기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형은 또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했다. 말로 밖에 못하지만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집에 있

었을 때 할머니들이 모여 나눈 수다를 이야기로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도 했다. 그렇게 형을 만나는 한 주, 한 주 “공부하고 싶다”, “이야기 쓰고 싶다”는 주문을 들었다. 그 주문들, 발걸음이 큰 선물로 남아 있다고 형의 귀에 그리고 사람들의 귀에 전하고 싶다.

생각하면 같이 지내며 지치고 회의하던 날들도 있었다. 그러다가도 문득 웃음 짓던 날들이 있었다. 평소 1시간을 못 넘기던 글 쓰던 시간이 월드콘을 먹고 4시간 넘게 집중했던 날, 못 할 것 같았던 니체의 구절 암기를 주말마다 연습해 연극으로 올렸던 날, 장애를 낮게 해준다고 하던 교회 단식원에서 안 좋았던 기억을 토로하며 스피노자에 대해 2시간 넘게 같이 이야기한 날, 야



학 친구들과 함께 부산에 희망버스를 타고 가서 시위하다 뒤로 빠져 컵라면에 소주 먹던 날, 노동에 대해, 노동문제는 무엇인지 토론했던 날, 형이 내가 만든 퍼포먼스에 막간 출연하려고 비좁막 맞고 온 날, 둘이 소주 먹고 누워 한 줄 시 짓기를 1시간 넘게 했던 날, 무슨 일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잔뜩 우울했을 때 형이 술 사줬던 날.

언젠가부터 내 입술은 형을 만나는 수유역에 내리면 힘이 들어갔다. “와봐라”, “그렇지 뭐!” 하는 배짱 같은 것도 나타났다. 나는 그 이유가 동네가 으스스한 탓인가 싶었다. 이제 보니 그 표정은 형한테서 왔다. “해보는 거지, 뭐. 내가 한 두 번 해보냐.”, “뭘 그렇게까지 걱정하고 사냐? 그렇게 신경 쓰면 피곤해서 못 살어. 내 몸 잘났다 하면서 사는 거지. 뭐.”, “내가 대답한 것 같이 보여도 엄청 소심하다. 누나도 시집갔겠다. 야학 다니면서 나도 집 나와 살아볼 수 있겠지. 뭐 그

래 본거지.”, “저기요, 저기요, 이것 좀 올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음식은 흘리면 닦아먹으면 돼. 근데 왜 내가 내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그만 뒤야지 되냐.”

형을 만나러 가는 길이면 내가 좋아하던 형의 일부, 그 역세면서도 환히 웃던 표정이 옮겨왔던 것 같다.

호식이형! 형이 남긴 그 표정들 이렇게 있네요. 함께 하는 동안 정말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그리고 약속한 동화 100편 쓰기 남은 97편은 꼭 완성해야 돼요!!



【특집2\_노들의 벗, 김호식을 보내며】

# 나의 깃발



홍은전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불수레반 담임이다. 2014년 7월 야학 상근활동을 그만두는 순간 기본소득 지지자가 되었다. 도서관에 앉아 멍 때리며 일기 쓸 때가 제일 행복하다. 데모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서 구교현과 결혼했는데 테러방지법이 통과돼 버려서 걱정이다.

사방이 꽉 막힌 삶. 그는 출구의 열쇠를 얻고 싶어 했다.

야학을 한다는 건 그와 함께 니체를 읽고

연극을 하며 열쇠 찾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었고,

우리에게 장애인 운동이란 기어이 출구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야학 학생 김 아무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건 그의 장례가 끝난 직후였다. 갑작스런 부음도 믿기 어려웠지만, 그가 이미 화장되어 납골당에 안치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모두 할 말을 잃었다. 3일 전 그는 소주 세병을 마신 후 축 늘어진 채 잠이 들었고 그날 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의 죽음을 발견한 활동보조인은 충

격에 빠져 어찌할 줄 몰랐다 했고, 가족들은 그가 ‘혼자’의 몸이었으므로 빈소를 차리지 않으려다가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지원단의 설득으로 삼일장을 치렀다고 했다. 그리고 하필 그날 그의 핸드폰이 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우연들이 겹쳐 그는 15년을 함께 보낸 벗들과 단 3일의 이별의식조차 갖지 못한 채 세상

을 떠났다.

2001년 그를 처음 만났다. 뇌병변 장애인인 그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술에 취해 자신을 때리던 형제에 대한 상처가 있었다. 열아홉에 복지관에 나가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으나 속도가 더딘 그는 거기서도 배제되었다. 장애인의 날, 직원들이 장애인들의 머릿수를 센 후 차에 태워 올림픽공원에 풀어



**노들장애인아학 김호식 학생 추모일정**

● 4월 11일(월) 오후 2시 용머리 날굴당 방문

● 4월 11일(월) 오후 7시 30분 추모식

추모식 장소는 노들장애인아학 4층입니다.

약력소개 : 사회(김진수 교사대표)  
추모발언1: 노규호(노들장애인아학 교사)  
추모발언2: 허금희(노들장애인아학 교사)  
추모발언3: 이진희(노들장애인아학 동문)  
추모영상  
추모발언4: 장대경(노들장애인아학 총학생회장)  
추모발언5: 윤명동(노들장애인아학 동문)  
추모발언6: 최정(노들장애인아학 학생)  
추모발언7: 이미정(노들장애인아학 학생)

**[ 고인의 약력 ]**

- 1973년 4월 27일 경기도 연우에서 태어남
- 1991년 복지관을 다니기 시작
- 2001년 복지관 원주(조원동)의 경우로 노들아학에 입원(정훈반)
- 2009년 자립을 시작
- 2009년 국민권 초대직 경영포장마차 주연
- 2009년 인문학 강좌 및 세미나 등에 참여
- 2009년 중립결정교시 합격
- 2010년 노들장애인아학 흡수해당으로 진급
- 2011~2014년 노들의 장애인교육장으로 활동
- 2015년 4월 7일 자택에서 사망

이것이 나의 가르침이다. 언젠가 나는 밥을 먹고자 하는 자는 먼저 차는 법, 걷는 법, 달리는 법, 지어모르는 법, 걸리는 법까지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날 수는 없는 법이다!  
-고인의 생애를 다룬 방송을 보던 나만의 글

놓는 걸 보고 '천사 짓'을 그만 두었다고 했다. 서른이 되어 야학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가 원했던 건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는 법을 찾는 것'이었다. 술과 이야기를 좋아하는 유쾌한 사람이었다. 한글은 좀처럼 늘지 않았으나 누구보다 배움을 갈구했다. 몇 년 전 독립했고 술을 많이 먹고 자주 넘어졌다. 상처를 달고 살았다.

만날 때마다 킬킬대며 타박했던 그가 이렇게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의 죽음이 적나라하게 깨우

쳐주던 밤. 후회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는 술을 끊었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먹었다고 했다. 빈속에 부어댄 술의 숙취보다 끔찍한 것은 자꾸만 실패하는 못난 자신을 견디는 일이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야학에 왔던 날, 그는 몸이 아팠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간 그는 그 아픈 몸에 3일 동안 술을 부었다. 작은 방 한켠에 축 늘어진 채 잠들어 있는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참을 수 없이 슬펐다. 그들의 삶을 모르지 않았다. 알면 알수록 감당하기 어려웠으므로 열심히 도망치듯 살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안다고도 할 수 없었다. 알았더라면 그 삶에 그토록 함부로 훈수를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뒤늦게 마련된 추모제에서 영상 속 그를 보았다. 그는 니체를 읽었고, 연극을 했다. 텃밭에 가서 열무를 뽑았고, 초등학교에 가서 인권 교육을 했다. 그것들은 모두 학생들의 깊은 무기력과 냉소, 우울과 싸워보겠다고 교사들이 기를 쓰고 만들어낸 것들이었다. 사람들은

당시의 기쁨과 희망, 짜증과 실망을 떠올리며 희미하게 웃었다.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빛나는 추억을 보고 있었으나 동시에 그가 홀로 견뎌야 했을 외로움과 공허, 환멸의 깊이를 보고 있었다. 그의 삶이 밀빠진 독 같았다. 일개 야학의 노력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결핍. 그에겐 왜 그만큼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았나.

뒤늦게 새로운 삶을 꿈꾸며 그들은 가족과 시설로부터 자립했다. 그러나 가족에게 소외되고 학교로부터 거부당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해 생긴 그들의 거대한 공백은 몇 개의 복지 프로그램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사방이 팍막힌 삶. 그는 출구의 열쇠를 얻고 싶어 했다. 야학을 한다는 건 그와 함께 니체를 읽고 연극을 하며 열쇠 찾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었고, 우리에게 장애인 운동이란 기어이 출구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4월 7일, 우리의 깃발 하나가 사라졌다. 무력함을 견디며 쓴다.

**【형님 한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했습니다」

노들 야학에서 함께 친했습니다.  
김명항

을 사월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영영 떠났습니다. 늘 함께 했던 사람들, 너무나 빨리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우리들의 슬픔, 허망함, 놀라움이 말로써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막상 우리 앞에 함께 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많이 슬퍼 하고 말로는 어떻게 표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집니다. 죽음이란 것은 우리에게 견디기 어려운 슬픔과 허무함을 주곤 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힘은 어떻게 피하기도 못하는 죽음이란 존재 우리들은 그 앞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고 그저 나약 하디 나약한 존재 일 뿐입니다. 다만 그 앞에서 극복 하고 맙니다. 사월에 우리는 그런 죽음으로 두분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또 아픕니다. 평원재 이사장님이신고 이종각님께서 돌아 가셨습니다. 그동안 폐암으로 투병을 하시고 한 동안은 많이 좋아 지셨는데 암이 추후과 귀로 전이가 되셔서 결국은 4월 7일 오후 7시 30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생전의 유언에 따라 화장을 해서 마로니에 공원 한켠에 있는 은행나무에 뿌려지고, 낙산 공원에서 우리 노들 야학이 보이는 위치에서 뿌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유골은 고인의 가족들께서 밭을 받았서 바다에 뿌린다고 하십니다. 아저는 인자하신 모습. 친견한 고 이종각 이사장님을 영영 뵙을 수가 없게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고인자 하신 모습으로 늘 들어내 놓으시지 않으시고, 뒤에서 키다리 아저씨처럼 도움을 많이 주셨던 그 마음을 오래 오래 동안 우리들의 머리에 남아 있을 겁니다. 아련히, 고 이종각 평원장님, 행복 한 곳에서 고단 한 짐들을 모두 내려 놓으시고 편안히 학생이신고 김호식님께서 4월 6일 수요일~ 4월 7일 목요일 새벽 2시쯤. 자에서 깊은 경색,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당 그 사실을 우리는 토요일 아침에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았을 때에는 이미 돌아가시고, 화장되어 밥골당에 췌관이 안치된 채였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불과 몇달 전에도 야학에서 함께 수업을 받던 호식 동생이 갑자기 이런 비고자들러 우리들을 너무나 슬프게, 허망하게 했습니다. 죽음이 허망하게 그리고 갑자기 온다지만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홀로 쓸쓸하게 떠난 고 김호식님을 벽제 밥골당으로 찾아왔습니다. 노들 야학에서 학생, 교사 활동보조인들을 포함해서 60명이 참가해서 고 김호식 영전에 조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학에 돌아와 수업을 마치고 고 김호식님 추모제를 윗층과 함께 했습니다. 외롭게 홀로 머나먼 길을 떠난 고 김호식님을 추모하면서 생전에 고인과 관계를 가졌던 분들이 추모 글들도 썼습니다. 평소에 장난을 좋아하고 꿈과 연극도 하시고 인문학 공부도 하시면서 생각들이 깊으셨던 고인이었습니다. 평소에 가졌던 꿈들을 현실에 부딪쳐 못 이루고 방황하면서 슬픔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렇게 홀연히, 허망하게, 외롭게, 홀로 세상을 마감한 고 김호식님 부디 좋은 곳에서 장애도 없고, 가난도 없는 곳에서 멋진 꿈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쉬세요. 부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추별도 없고 무거운 짐도 내려 놓으시고 편안하게 쉬세요. 금년 사월은 이렇게 우리들과 함께 했던 사랑하고, 소중한 두분을 멀리 보내야 했던 참으로 존엄한 슬픈 사월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두분인 고 이종각 평원계 이사장님, 고 김호식님의 명복을 머리 깊이 숙여 바랍니다.

【고병권의 비마이너】

## 희망 없는 인문학

루쉰이 다시 글을 쓴 이유에 대하여

고병권

오랫동안 연구공동체 수유너머에서 밥 먹고 공부해왔으며, 작년 여름부터 무소속 연구자로 살아가고 있다. 노들야학에서 철학교사로 지내왔고 최근에 잠시 휴직한 상태. 그동안 밀린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활동으로 자기 충전 중!

오랜만에 재소자들과 함께 하는 인문학프로그램인 평화인문학에 참여했다. 2008년에 강사로 처음 나섰는데, 한 2년 열심히 하다가 그 뒤에는 별로 참여하지 못했다. 그래도 평화인문학은 생명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십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 교정 당국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규모가 줄긴 했지만 주관 단체인 인권연대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나는 2008년 안양교도소에서 받은 첫 질문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철학을 공부해야 하나?" 당시에는 여러 곳에서 평화인문학과 비슷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넓은 의미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문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큰 역할을 한 책이 얼 쇼리스의 『희망의 인문학』이다. 이 책에는 내가 받은 질문에 대

한 나름의 답변이 실려 있다. 저자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 내몰리고 결국 자포자기의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언어를 갖지 못해서이다. 사회 공론장에서 가난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언어 말이다. 그런데 인문학은 그 언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다시 말해 인문학은 가난한 이들을 정치적·사회적 주체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 가난한 이들에게는 돈이나 자격증 이상으로 인문학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게 그 책의 주요 논지이다. 한국의 역자들은 그 간절함을 담아서 책 제목을 아예 '희망의 인문학'으로 바꾸기까지 했다(참고로 원제목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부'이다).

하지만 안양교도소에서 그 질문을 받은 날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나는 인문학 공부의 의미를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다. 나는 더 이상 '희망

의 인문학'을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인문학을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인문학 그 자체는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지 못하며,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수단도 아니다. 설령 가난한 이들에게 투쟁 정신을 고취하고 그들의 무기가 될 만한 말들을 인문학이 제공해줄 수 있을지라도, 그런 수단으로서 인문학을 공부하자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에게 이런 생각을 일깨워준 것은 중국 작가 루쉰의 짧은 글 두 편이다.

첫 번째 글은 루쉰이 소설집 『외침』에 붙인 서문이다. 그는 의학을 배우러 일본에 갔는데 수업 시간에 본 한 장의 사진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는 러일전쟁 중이었는데, 한 일본군 장교가 몇몇 중국인들이 러시아 스파이 노릇을 했다며 한 명을 본보기 삼아 목을 치고 있었다. 주변에는 그 광경을 구경하는 중국인들이 여럿 있었다. 그 사진을 본 후 루쉰은 “제 아무리 진장하고 튼튼해도 어리석고 약한 국민은 본보기 재료나 구경꾼이 될 뿐”이라며, 정신이 온전치 않은 국민의 불행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했다. 그리고는 민족의 정신을 개조할 문예운동의 길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루쉰이 계획한 일들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문예잡지를 내기로 했던 동지들은 흩어져 버렸다. 그는 적막함을 느꼈다고 했다. 옛날의 비문들을 베끼며 시간을 보내던 때 친구 한 사람이 찾아와 다시 글을 쓰라고 했다. 이때 루쉰이 꺼낸 이야기가 그 유명한 ‘철방에서 자는 사람들’이다. “가령 말일세, 창문도 없고 절대 부술 수도 없는 철로 된 방이 있다고 하세.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네. 머잖아 모두

숨 막혀 죽겠지. 그러나 잠든 상태에서 죽어가기까 죽음의 비애는 느끼지 않을 걸세. 지금 자네가 큰 소리를 질러 비교적 깨어있는 몇 사람을 일켜, 그 불행한 몇 사람들이 구제할 길 없는 임종의 고통을 겪게 한다면 도리어 그들에게 미안한 일 아닐까?” 그러자 친구가 답했다. “몇 사람이라도 일어난다면, 그 철로 된 방을 부술 희망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 대화 이후 루쉰은 다시 글을 쓰기로 했다.

나는 인문학 강연 시에 이 이야기를 종종 꺼낸다. 루쉰이 의학에서 문예 쪽으로 전향하는 장면이나 그가 글을 다시 쓰기로 한 대목에 인문학 공부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노들야학에서도 이 이야기를 몇 번 꺼냈다. 그리고 그 때마다 학생들에게 철방에 잠든 사람들을 깨울 것이냐고 물었다. 답변은 항상 같았다. 고통스럽게 뭐하러 깨우느냐는 사람도 있었고, 당장 깨워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다. 답변이 갈리기는 어디서나 마찬가지지만, 노들 학생들의 반응은 다른 곳보다 더 강한 편이다. 안 깨웠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다른 곳보다 한숨을 더 깊이 쉬고, 당장 깨워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다른 곳보다 더 흥분한 목소리로 말한다. 지난 시절의 기억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이삼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희망’ 쪽에 방점을 두었다. ‘그래도 깨우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할 때, ‘그래도’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는 어쨌든 ‘희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보니 나는 루쉰의 글을 꼼꼼히 읽지 않았다. 루쉰이 글을 다시 쓰기로 한 것은 친구의 답변 때문이 아니다. 그는 자기 “나름의 확신은 있었지만” 친구의 말을 반박할 수 없었노라고



없고 그것도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다행이라고 했다. 현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노예를 동정했고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위로했다. 신세한탄을 쏟아내고 기분을 푼 노예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 그는 지나가던 바보를 붙잡고 또 신세한탄을 했다. 자신이 사는 집은 외양간만도 못해서 방에는 창문 하나 없고 녹녹하고 짙은 냄새가 난다고 했다. 바보가 창문을 내달라고 주인에게 말하라고 하자 노예는 그건 엄두

했다. 희망은 미래에 속하므로 그것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말을 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엄밀히 보자면 그 친구는 루쉰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루쉰은 분명히 ‘절대로 부술 수 없는 철방’이라고 전제하고서 그럼에도 깨울 것 인지를 물었다. 그런데 친구는 영똥하게 ‘희망’을 끌고 와서 ‘부술 수 없는 철방’이라는 전제를 깨버렸다.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루쉰이 글을 다시 쓴 이유를 친구의 답변에서 찾을 수는 없다. 도대체 왜 그는 다시 글을 쓰기로 한 것일까.

또 다른 루쉰의 글 「충명한 사람, 바보, 노예」를 읽었을 때 나는 그 답변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노예는 고달픈 처지를 여기저기에 하소연하는 사람이다. 하루는 충명한 사람, 즉 현자를 만났다. 그는 자신이 먹는 음식은 개나 돼지도 거들떠보지 않을 정도로 형편

도 못 낼 일이라고 했다. 그러자 바보는 노예의 집으로 가 창문을 내주겠다고 벽을 헐었다. 놀란 노예는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모았고 바보를 쫓아냈다. 노예는 고함소리를 듣고 온 주인에게 어떤 강도 놈이 벽을 부수기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쫓아냈다고 했다.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하자 그는 기분이 한껏 좋아져서 때마침 찾아온 현자에게 말했다. 언젠가 내게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한 현자의 말이 맞았다고. 오늘 주인님에게 큰 칭찬을 받았다고.

우리는 이 노예가 평생 노예로 살 것임을 예감한다. 그는 평생 창문 없는 방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 벽이 단단해서도 아니고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어서도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가 노예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다는 데 있다. 이 자각이 없는 한에서는 누구도 그를 구원할 수 없다. 루쉰은 구원자의 목록에서 지식



인, 즉 현자를 일찌감치 배제했다. 현자는 구원 자이기는커녕 노예체제의 협력자이다. 그는 노예의 처지를 위로하고 막연한 희망을 제공하면서 노예로 하여금 노예적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만든다. 물론 바보도 노예를 구원하지 못했다. 노예를 구하기 위해 벽을 부순 혁명가 바보를 쫓아낸 것이 또한 노예였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노예가 노예이기를 멈출 수 있을까. 결국 누군가 말한 것처럼, 노비 문서는 노비 손으로 찢어야 한다.

루선은 왜 다시 글을 쓰기로 했을까. 철방을 부술 수 있는 희망을 떠올렸기 때문이 아닐 것이다. ‘절대로 부술 없는 방에 갇힌 채 잠든 사람들을 깨울 것이냐’고 물었을 때, ‘그래도 철방을 부술 희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답하는 것은 사실상 물음을 회피한 것이다. 그런 ‘희망’을 이유로 사람들을 깨우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만약에 정말로 철방에서 나갈 희망이 없다면 당신은 사람들을 안 깨울 것인가.

나는 루선이 다시 글을 쓴 것은 희망을 보아서도 아니고,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철방에서 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한 편의 글보다 총알 한 방, 망치질 한 번이 더 낫다. 인문학은 이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무력하다. 문학이나 철학에는 애초에 철방을 부술 힘이 없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글을 쓰고 인문학 공부를 하는가. 왜 우리는 철방에서 잠든 사람들을 깨워야 하는가. 이상한 말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철방에 갇혀 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지금 우리가 노예로 살고 있고 수인으로 갇혀 있다는 것,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감옥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 자각이 없다면 우리는 한 주인을 벗어나고도 금세 다른 주인을 섬기는 노예로 살 것이고, 창문 없는 방에서 벗어나서도 또 다른 창문 없는 방에 갇혀서 한탄하고 위안하며 계속 살아갈 것이다.

인문학이 어떤 힘을 발휘한다면 철방에 대해서가 아니라 철방에 갇힌 사람에 대해서일 것이다. 즉 인문학은 사람을 철방에서 빼내주지 못하지만, 철방에 갇힌 사람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꿀 수는 있다. 노예가 꾸는 달콤한 꿈을 빼앗는 대신 자유인만이 느끼는 답답함을 선물할 수 있다. 나는 ‘희망의 인문학’ 대신 희망을 만들지 않는 인문학, 희망에 의존하지 않는 인문학, 한마디로 ‘희망 없는 인문학’이 더 소중하고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니 지난 4월 훌쩍 우리 곁을 떠나버린 김호식은 참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는 철학 수업에 가장 큰 열의를 보였고, 니체와 루선을 정말 좋아했는데, 철방 이야기에 대한 반응은 한결같았다. 나는 그에게 해마다 똑같은 물음을 던졌는데 매번 ‘깨우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인문학 공부가 정말 재밌고 또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그랬다. 재작년에는 옆에서 누군가 “깨워야 나갈 희망이 있다”고 하자 “어떻게 나가? 아무 소용없잖아!”라고 대꾸했다. 그때까지 ‘희망의 인문학’을 말하고 다니던 내게는 의외의 답변이었다. 그때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문득 그에게 묻고 싶다. 혹시 내가 ‘깨운다’는 말로 희망을 부풀리고 헛된 꿈을 꾸게 한 것을 질책한 것은 아닌지….

## 낙산 발정(發程)

김진수

노들야학 상근 교사이고, 2016년 교사대표이기도 해요.  
요새 취미는 점심시간마다 낙산에 올라 제가 살고 있는 곳을 보고 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보는 일은 언제나 좋네요.

봄이 왔을 때였다. 낮 수업 학생들과 낙산에 갔다. 봄이 온 낙산은 흐드러졌다. 벚꽃 잎은 날리고, 개나리는 노오랑고, 진달래는 발그레 했다. 풀냄새와 꽃냄새가 진동했고 하늘은 저 끝까지 보일 듯 파랗게 투명했다. 그렇게 낙산은 봄을 드러냈고, 그런 낙산을 보며 우리는 기침을 하듯 저마다 봄을 터트렸다. 와~ 봄이다! 개나리다! 벚꽃 봐! 한마디로 발정 난 봄이었고 그 봄을 따라 발정 한 낙산이었다. 낙산은 봄을 따랐고 우리는 그 낙산을 따른다. 도심에선 봄이 쉽게 드러나지

않기에 드러난 곳으로, 낙산으로, 봄을 따라... 수원에서 슈퍼를 하던 시절 개 한 마리를 키웠다. 우리 집 개가 발정이 난 어느 날, 슈퍼 영업을 마치고 녀석과 산책을 했다. 고물상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커다란 철문 밑 작은 틈으로, 개 주둥이가 삐죽이 나왔다.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빠져 나온 주둥이의 코가 벌름 거렸다. 그 모습을 본 우리 개가 그 주둥이를 향해 나를 잡아끌었다. 그러더니 서로 주둥이를 맞대고 쿵쿵거리며 냄새를 맡았

다. 그렇게 냄새를 몇 분쯤 맡았을까, 잠시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 둘은 떨어졌다.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났다. 다음 날 슈퍼 앞에 개 한 마리가 찾아왔다. 알고 보니 그 녀석은 그때 그 고물상 개였다. 그렇게 그 개는 몇 날 며칠을 슈퍼에 찾아와서 우리 집 개를 보고 갔다. 한두 달쯤 지나자 녀석의 발걸음이 뜸해지더니, 찾아오는 간격이 한 달이 되고, 그보다 더 길어지기도 했다. 가끔 녀석이 슈퍼에 찾아올 때, 어떤 날은 향긋한 비누 냄새가 났고, 어떤 날은 고약한 음식 썩은 내



가 났다. 눈에 상처를 입거나  
몸이 굽혀 찾아온 적도 있었다.  
고물상 아저씨의 말로는 녀석  
이 집을 나갔다고 했다. 고물상  
개가 집을 나간 게 우리 집 개  
때문인 것 같아 조금 뜨끔했지  
만, 전에 고물상에서 키우던 개  
가 죽었다는 소식을 몇 번 들었  
던 터라 오히려 통쾌했다. 아무  
튼 그렇게 녀석은 발정 난 우리

집 개를 따라 고물상 밖으로 발  
정(發程: 길을 떠남)했다.

흐드러진 낙산을 감상하고  
다 같이 마음이 들떠 왁자지껄  
떠들며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본 경남 누나가 우리를 보고 한  
마디 한다. “어머~ 다들 발정났  
나봐~” 그 말을 듣고 모두 깔깔  
대며 웃었다. 하긴 봄이니, 이

렇게 한껏 봄을 따르는 낙산이  
있으니, 발정(發程)을 안 할 수  
가 있다. 얼마 있으면 자연이  
자신을 더욱 더 드러내 보이는  
여름이다. 이번 여름, 집을 나  
와 길을 떠났던 고물상 개처럼,  
낙산을 향해 발정했던 우리들  
처럼, 어딘가를 향해 누군가를  
향해 발정해 보시길!

하긴 봄이니,  
이렇게 한껏  
봄을 따르는  
낙산이 있으니,  
발정(發程)을  
안 할 수가 있다.



【노들아 안녕】

## 노들에서 ‘활동하는’ 필순입니다

김필순

자연색의 머리카락을 가졌다. 갈색 머리라 흰머리가 덜 보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노들장애인야학과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한다.

안녕하세요. 노들장애인자립생  
활센터에서 활동하는 필순  
입니다. ‘활동하는’이라는  
이 말이 아직 입에 잘 붙  
지 않아요. 많은 시간  
저를 소개할 때 ‘〇〇에  
김필순입니다’, ‘〇〇에  
근무하는 김필순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저는 오랜 시간 직장이라는 곳  
에서 근무했어요. 근무하는 것과 활  
동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물어보면 아직은  
정확히 구분하여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이 ‘활동  
하는’이라는 단어가 좋아요.



니던 곳이 더 괜찮은 직장 아니  
예요?’, 노들에서 활동하면  
서 많이 받는 두 가지 질문  
이에요. 우선 노들에 어  
떻게 오게 되었는지. 이  
건 저도 수많은 노들인  
에게 묻고 싶은 것이기도  
해요.^^ 또 ‘학교 다닐 때  
운동하셨어요?’라는 질문도  
많이 받지만 저는 학생운동 출  
신(?)도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에

‘노들에 어떻게 오게 되었어요?’, ‘이전에 다  
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수많은 집회에



서 늘 마이크를 잡고 대중을 선동하는 고장 썸이 허리를 굽혀 해치마당에 깔개를 까는 모습을 보고, 저곳은 어떤 곳일까 생각을 했어요. 궁금하다. 저 조직.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노들을 보았지요.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이전에 일하던 곳에서는 모두들 '직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전에 다니던 곳은 활동하는 공간이 아닌 직장이었던 것이지요. 노들센터보다 업무량은 적고 급여는 조금 더 많은 곳이었어요. 많은 이들이 더 나은 직장이라 말하지만, 그렇게 비교하는 자체가 불가능하지요. 한 곳은 직장이고, 한 곳은 직장을 넘어 활동하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노들에서 일할 기회가 생기자마자 냉큼 오게 되었습니다. 야학에서는 신입교사 딱지를 떼고 수학

4반 수업을 하고 있고, 센터에서는 사업과 운동이 분리되지 않는 활동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요. 그런 저를 보고 '그러다 쓰러진다'고, '너무 피곤하지 않냐'고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재밌어요, 노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자신이 행복한지 아는 사람이라는 글을 읽었어요. 저는 커피, 빵, 맥주를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고 산책을 좋아해요. 그 좋아하는 것에 노들이 들어왔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좋아하는 것을 하지는 않지만, 좋아하는 것을 하고 좋아하는 것들과 가까이 있어 느끼는 행복감이라면 열심히 누릴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노들에서 자주 만나요. 노들아 안녕.

【노들아 안녕】

## You Only Live Once!

이승현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남성 자립생활주택  
3개월 차 신입 코디네이터 & 활동가.



1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큰 인기와 더불어 이슈의 중심에 섰던 배우들이 「꽃보다 청춘」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아프리카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현지에서 다양한 국적의 여행객들과 만나며 들었던 단어를 시청자들과 공유했다. YOLO. You Only Live Once의 약자, '당신의 인생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라는 뜻. 우리는 모두 눈을 감는 행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눈을 뜨는 행위로 하루를 시작한다. 날마다 주어지는 이 하루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어쩌면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2 나는 16살, 중학교 3학년 수학여행 때 장애인과의 첫 조우를 경험했다. 흔한 수학여행 지인 청소년수련원이나 경주 등이 아닌 충북 음성 꽃동네로 갔던 터라, 좋은 싫든 2박 3일을 장애인들과 함께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두려움과 어색함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과 다르게, 난 그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게임을 하며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님을 배워갔던 것 같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시작되었다.

3 본래 나의 전공은 화학이었다. 그러나 진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을 하던 중, 나라는 존재가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사회복지로 오랜 방황 끝에 다시 선택하게 되었다. 10년 만에 학부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의 수많은 분야 중 장애인복지를 선택했다. 그리고 지금은 노들에 있다. 노들에서 나의 활동은 자립생활주택 코디네이터의 역할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학창시절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무언가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으로서 장애인을 대하던 접근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나는 이제 장애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하는 위치에 있고, 현재의 이 상황이 여전히 조금 낯설다. 세달 여 간의 시간, 나는 그 사이 전경에게 둘러싸여 천막을 지켜야 했고, 시청과 구청 앞 그리고 길거리에서 팻줄을 하며 구호를 외쳐야 했으며, 빌딩 지하 강당에서 잠을 청하였다. 누군가에게는 일상이었지 모를 일이 나에게서는 낯선 꿈과 같았다.

4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아니 해야만 한다. 길지 않은 시간 노들에서 활동을 하며 든 생각이다. 세상은 장애인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장애인을 자신들과는 다른 존재로 여기며 사회의 낙오자로 낙인을 찍는다. 세상과의 소통은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막혀있다. 우리의 끊임없는 외침이 우물 안 메아리에 그칠지라도, 잠시 목을 축이려 들른 나그네의 귀에는 들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YOLO, 한 번 뿐인 인생. 천천히 함께 걸어가고 싶다. 누구나 평등한, 누구나 동등한. 조금은 느릴지라도 조금은 돌아갈 지라도.

【노들아 안녕】

## 꽃동네에서 나와 노들로

≡≡≡ 추경진

노들장애인야학 학생. 현재 평원재에서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경진입니다. 저는 1997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되고 꽃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살다가 2016년 1월 7일 음성 꽃동네에서 나왔습니다.

꽃동네에서의 삶은 답답하고 지루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가족이 있어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꽃동네에서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

선 죽기 싫다. 정말 죽기 싫다. 그래서 꽃동네를 나오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꽃동네를 나오게 되기까지 꽃동네에서 같이 살다가 자립을 한 친구들의 모습이 큰 힘이 됐습니다.

노들은 이음자립생활센터에서 진행한 1박 2일의 자립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꽃동네에서 나온 친구들이 노들장애인야학에 많이 다니고 있어서,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궁금했고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공부에 대한 관심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를 해서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들은 장애인운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장애인으로서 운동을 하고 투쟁을 해야 하는 이유를 노들을 통해 알고 싶습니다. 잘 모르는 채 투쟁을 하고 싶지 않고, 우리가 무슨 내용으로 싸우는지 왜 싸우는지 그 이유를 알고 참여하고 싶습니다.

꽃동네를 나와서 다치기 전에 살던 마포에 가봤습니다. 예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심란할 때 가보곤 했던 곳이었는데, 옛 장소의 추억을 찾을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요즘은 꽃동네에서 탈시설한 사람들의 모임인 '더 플라워'에 가입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사는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특별한 건 없고 돈을 좀 모아서 임대아파트와 같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 닥쳐오는 일들을 회피하지 않고 잘 헤쳐 나가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비마이너』 기자 박정수입니다

≡≡≡ 박정수

수유너머에서 오랫동안 밥 먹고 공부하며 생활해왔다.  
올해 3월부터 『비마이너』의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 중.



2015년 가을 수유너머R이 해체되었고, 나는 무소속이 되었다. 수유너머N이나 다른 인문학 공동체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뭔가 다른 일을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다.

2002년부터 13년 동안 달고 다닌 '수유너머 연구원'이라는 직함이 떼어지자, 청탁받은 원고에 뭐라고 필자 소개를 해야 할지 막막해졌다. 자유 연구자? 무소속 인문학자? 그렇게 무소속으로 몇 달이 지나자 허전함이 밀려왔다. 내가 이토록 고독에 취약할 줄이야. 짐작은 했지만 나의 '무리 본능'에 새삼 놀랐다. 지금과는 다른, 그렇다고 생판 다르지는 않은 일을 해보고 싶었다. "광화문광장 세월호 지킴이를 해. 사람 필요할 텐데, 국회 앞에서 일인 시위 하는 한중선 씨를 돕든가." '현장'과 결합하고 싶다는 말에 아내



가 너무 세게 나왔다. 그건 너무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고, 지금의 나를 어느 정도 존중해 주면서, 지금과는 다른 일과 소속감을 갖고 싶단 말 이야.

문득, 몇 년 전 어느 술자리에서 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만약 수유너머가 없다면 저는 노들에 있을 겁니다.” 아마 수요 현장인문학 뒤풀이 자리였을 것이다. 그래, 노들이 있었지. 노들로 가자. 그런데 뭘로? 상근자? 교사? 또 움짤, 주저한다. 『비마이너』라면? 그래, 『비마이너』 기자라면 지금까지의 공부도 써먹으면서 지금과는 다른 스타일의 연구와 글쓰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쌌었다’.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김유미를 만나 의사를 전했고, 두 달 정도 ‘숙려’ 기간을 거쳐 『비마이너』 기자들과의 ‘면접’ 끝에 지난 3월부터 사무실로 출근을 하게 되었다.

명함도 만들고 기자증도 받았지만, 사실 나는 『비마이너』의 ‘정식’ 기자가 아니다. 즉 다른 기자들처럼 임금을 받고 기사 작성 노동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임노동’의 성격을 지닌 의무적인 일로부터 자유롭다. 대신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쓰고 싶은’ 기사를 씬으로써 『비마이너』의 콘텐츠 생산에 질적·양적으로 기여하도록 요청받는다. 수유너머R의 동료였던 고병권이 “와, 일주일에 한 편만 쓰고 이 안정된 자리와 멋진 동료와 매체를 갖게 되다니”라며 부러워했듯이, 나로서는 절대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단체 면접 때 우려했던 바와 같이 나의 어정쩡한 ‘포지션’과 ‘연륜’(?) 때문에 다른 기자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처신만 잘하면, 솔직히 『비마이너』 입장에서 무임금으로 양질의(?) 기사를 확보할 수 있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

다.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그런 어정쩡한 위치와 자세로는 당신도 못 배우고, 그 친구들도 얻는 게 없어”라고 아내가 따끔하게 충고했지만, 지금은 좋으니까(나만?) 일단 됐다.

『비마이너』 기자가 되니 좋은 게 참 많다. 먼저 나날의 일상이 좋다. 단체 ‘텔방’에서 ‘드립질’ 하는 게 좋고, 점심, 저녁 매번 푸짐한 식사가 좋고(덕분에 뱃살이...) 낙산공원을 돌아 이화동 벽화마을까지 산책하는 것도 참 좋다. 2층 화단과 4층 로비에 화원을 가꾸는 것도 새로 찾은 일상의 재미다.

무엇보다 새로운 방식의 연구와 글쓰기가 좋다. 아내가 ‘장애계야말로 인문학 연구의 미개척 블루오션’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다. 인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사안들이 날마다 쏟아진다. 수유너머에서는 책을 통해 ‘다른 사유’를 만나고 현실에 적용시키려 했다면, 『비마이너』에서는 소수자의 현실을 통해 다른 사유를 하게 되고, 그걸 설명해줄 책을 찾게 된다. 수유너머에서는 모르는 게 있으면 또 다른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었는데, 『비마이너』에서는 모르는 게 있으면 당사자, 관련자, 조사자 등 다른 사람을 탐문한다.

3월 첫째 주부터 5월 셋째 주까지 10편의 기사를 썼는데, 그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쓴 건 「시설에 갇힌 성(性), 마리스타의 집에 스포트라이트」이다. 마리스타의 집은 충주에 있는 남성 지적장애인 거주시설로, 수년 간 반복된 거주인간의 성폭력 및 상호 성추행 문제로 인권위로부터 폐쇄 권고를 받았다. 마리스타의 집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기사를 보고 의문이 생겼다.

동성 거주인 간의 성폭행 및 상호 성추행이라

는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됐다. ‘성폭행이나 아니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냐’라는 이분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인권실태조사에 참여했던 장애인부모회 소속 어머니 두 분을 비롯한 탈시설 활동가들도 만나보고, 천주교 신부들의 동성 추행문제를 다룬 영화 「스포츠라이트」도 보고, 교도소나 군대에서의 동성 간 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련 자료도 찾아보았다. 그 결과 동성 간 성폭행과 상호 성추행이 공존하는 상황을 성적 자유가 박탈된 시설 공간의 도착적 성문화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 보도를 접했을 때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만 없다면 상호 간의 성행위는 괜찮지 않나 생각했지만, 탐문하고 연구한 결과 젊은 지적장애 남성들이 산골짜기 시설에서 성적 자유가 박탈된 상황에서의 ‘자의’란 진정한 자유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동안 쓴 글 중 현장 취재 기사는 딱 한 편 뿐이다. 마리스타의 집 인권실태 조사에 참여했던 어머니가 마침 특수학교 설립 문제로 서울시 교육청 점거 농성 중에 있었다. 정문에서 막아서는 공무원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장애인 언론사 『비마이너』 기자입니다”라고 말했다. 아직 기자증이 안 나와서 들고 간 카메라와 ‘진정성’ 어린 표정으로 기자임을 입증하고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다음 날 오전 부모회의 기자회견 일정이 텔방에 전해졌다. 카메라도 있겠다, 농성 중임에도 면담을 해준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있어서 내가 취재하겠다고 나섰다.

다음날 오전 나의 첫 번째 현장 취재는 엉망이었다. 카메라는 실수로 전원이 켜진 채 있어 배터리가 나갔고, 핸드폰으로 발언을 녹음한 건 중

간에 끊겨 버렸고, 손으로 받아 쓴 글씨는 나조차 무슨 뜻인지 읽을 수가 없었다. 사무실로 돌아와 기사를 써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다. 신문 기사는 읽어 보기만 했지, 막상 쓰려니 쉽지 않았다. 문장의 시작과 끝, 이음매, 단어 선택에 애를 먹었다. 농성 이유, 농성 과정에서 있었던 일, 농성의 의의에 대해 다 써야 한다는 생각에 묻고 조사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다. 다른 신문들은 관련 기사를 이미 다 발행하고도 한참이나 지난 오후 6시쯤에야 기사를 등록할 수 있었다. 그나마 등록한 기사는 편집장이 한 3분의 1정도를 교정보고 나서야 발행되었다. 그날 밤 텔방에서 현장 취재는 다른 기자한테 맡기고 앞으로 분석 기사나 쓰시라는 편집장의 ‘배려’ 어린 멘트에 너무 미안하고 창피했다.

분석 기사도 쉽지가 않다. 원래 글 솜씨가 별로인데다, 그동안 번역 투의 문장과 학술적 문어체에 찢어 있어서 쉽고도 간명한 기사문을 쓰기 힘들었다. 일단 초벌로 쓰고 프린트로 뽑아서 보며 몇 번을 고쳐도, 발행 후 아내의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언제쯤이면 흥은전 샘처럼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을까? 한탄하는 날들이다. 그래도 똑똑하고 성실한 『비마이너』 선배 기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부러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얻어서 참 좋다. 앞으로도 꼭 그렇게 좋을 수 있기를!

## 「노란 들판의 꿈」

노들 야락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2016년 5월 12일 목요일 오후 7시에 노들 장애인 야락에서 노란 들판의 꿈 (그림에도 불구하고 수업 합시다) (개정판)이 출판되어 노란 들판의 꿈 책 출판 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노들야락은 1993년 부터 2016년 24년 동안 길만 길고 짧으면 짧은 세월동안 치열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 24년 동안 공부도 꾸준히, 투쟁도 열심히, 사랑도 하면서, 깊은 대화도 하면서, 또한 열심히 마시면서 여기까지 달려 왔습니다. 또 그 반면에 좌절도 하고, 외로운 것도, 슬픔도, 방황도, 고민도 많이 하였던 세월이었습니다. 노들야락은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 모여 쌓여진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거창한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켜온 세월이었습니다. 그 노들야락이 걸어온 길은 그리 만만치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 힘하고 힘든 길을 학생, 교사, 노들야락을 사랑하고 격려해 주는 이들이 곁에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노들야락이 지금까지 존재하게 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너무 힘이 들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때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용기와 격려를 주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과 교사 관계는 수직 관계가 아니고 수평 관계입니다. 학생, 교사가 서로에게도 힘을 주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자신들의 고민들을 말하면서, 또한 슬픔도 즐거움도 말하면서 서로 간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를 만들어 갖고 생각합니다. 노들야락 공간은 사람의 범서와 장애인들이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가르쳐 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들야락 공간은 각자들에게 소중한 의미가 깊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들야락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들야락과 인연이 되어 함께 노들야락에서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들야락의 공간에서 함께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삶에도 커하고 값진 경험들을 함으로써 한층 더 각자의 삶의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노들야락 공간에서 서로간의 삶의 참 의미를 찾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노들야락을 사랑하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교단일기】

# 청솔 과학반이 일구는 노란들판

최재민

탈시설 운동하는 사람이다. 시설에서 생활하다 자립해서 잘사는 경남 누나를 보고 시설 따위는 없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가끔 몸과 마음이 얼얼하지만, 더불어 사는 지금이 좋다.



‘잘생긴, 최재민, 선생님’, 오해마시라. 청솔반 과학 수업에서 키우는 양파 이름이니 말이다. 2016년 봄 학기를 개강하고 첫 수업 시간에 한 학기 동안 키울 양파를 물 컵에 앉혔다. 양파 이름은 순전히 나의 제안이었고, 정란, 명선 누나는 반대했으나 끝내 전원 만장일치로 양파 세 개 이름을 정했다고 기억하고 싶다.

올해로 나는 야학에 온지 4년차다. 처음 야학의 문턱을 넘은 건 준호 형이 교사대표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나는 형한테 봉사하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준호 형은 어리숙하면서도 분명한 말투로 “그게 아니다”라고 했다. “노들에서는 봉사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말이다. 당황했던 것 같은데, 그 말이 싫지가 않았다. 그렇게 야학을 시작했다.

야학이 좋았다. 야학이 풍기는 냄새. 땀과 흙, 휠체어와 각종 음식, 투쟁의 열기가 내는 꾸리꾸리한(?) 냄새가 편안했다. 지금은 많이 정돈되었지만 2013년에만 해도 교실 하나를 사무실로 쓰고 냄새도 많이 났다.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던 건 나에게도 이런 냄새가 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리라. 장애가 내는 냄새라고 말하면 너무 비약일까?

초창기에는 내가 야학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까를 많이 고민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야학을 쉬기도 했다. 한 학기 수업 참관을 하고 정교사 인준을 하던 무렵인데, 학교에서 맡은 일이 너무 많은 상황이었다. 너무 바빠서 야학에 나오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청솔1반에서 국어를

래도 별 얘기가 없기에 나는 “에이~ 재미없다. 수업이나 해요”라며 마무리를 지으려는데, 그 순간 정란 누나가 “힘~ 내~”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학기 초부터 키우기 시작한 양파 매운 맛이 정란 누나의 말에 담겨 내 눈에 뭔가 맷히게 했다.

이오덕 선생님은 본인의 일기에 “20리길 걸어 수업을 온 학생들에게 나는 오늘 무엇을 가르쳤나”라고 회고의 말을 적었다. 나는 이오덕 선생님의 마음을 헤아리기에는 그릇이 작은지 이 말

가르치던 명희 교사가 수업 한 번, 교사회의 격주 한 번만 나오라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노들 안에 머물라’는 말이었는데, 그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다.

교사로 복귀하고 휴직했다가 다시 올해 복귀했다. 감사하게도 청솔반 과학을 맡았다. 수업은 마냥 좋다. 사실 나는 가끔 수업을 통해 위로받는다. 하루는 사는 게 힘들어 한 시간 겨우 수업 준비하고 야학으로 발을 끌며 온 적이 있었다. 출석을 다 부르고 형 누나랑 악수를 한 번씩 했는데도 마음이 영 불편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형, 누나, 나 요즘 힘들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로 시작해서 한참을 넋두리를 펼쳤더랬다.

청솔반 누나와 형들은 멀뚱멀뚱, ‘이 놈이 오늘 왜 그러냐’라는 표정을 짓고 당황 반 걱정 반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적반하장으로 “뭐라고 말 좀 해줘요, 형이랑 누나들은 산전수전 다 겪어서 알잖아요”라고 투정에 투정을 엮었다. 그

의 진정한 의미를 아직은 잘 모르겠다. 대신 나는 비오는 날 휠체어를 타고 온 학생들에게 “오늘 비오는 날이라 오는 길에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내 얼굴 보니까 좋죠?”라고 너스레를 떨며 수업을 시작한다. 내 말은 이오덕 선생님의 말과는 다르다. 그런데 또 그게 그렇게 다른 건가, 어쩌면 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학기 초에 기르기 시작한 양파들은 지금도 잘 자란다. ‘잘생긴’이라고 이름 붙인 양파만 빼고 말이다. 수업을 할 때마다 청솔1반 누나랑 형들에게 다른 양파보다도 ‘잘생긴’ 양파는 진짜 잘 키워야한다고 말하는데, 이 양파는 맨날 물도 뿌리고 있는 시들시들하다. 그렇지만 아무렴 어떠랴. 아무리 양파가 시들어도 나는 청솔1반 과학 교사로 나를 보고 웃어주는 학생 분들이 있는데 말이다. 양파 백 개가 시들어도 언제나 나를 좋아해주는 청솔1반 형, 누나들 곁에 머물며 살아가는 삶이라 감사하다. 바로 이곳이 우리들의 노란들판이다.

# 노(怒)치아나! 농치않아~!!

김진수

노들야학 상근 교사이고, 2016년 교사대표이기도 해요.  
요새 취미는 점심시간마다 낙산에 올라 제가 살고 있는 곳을 보고 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보는 일은 언제나 좋네요.



보치아는 표적구를 향해 공을 던져서 표적구에 가깝게 위치한 공의 점수를 합해 승패를 겨루는 경기로, 뇌병변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만이 참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공을 던지는 방식은

저마다 다릅니다. 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손을 사용해서 공을 던져 표적구에 붙이고, 손을 사용하기가 불편한 사람은 홈통(보치아 공을 굴리는 도구)을 이용해 공을 굴려 표적구에 붙입니다.

다. 홈통을 사용하는 사람은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경기를 합니다.

2016년 종로구 노들보치아교실(별칭 노치아나)이 열렸습니다. 4월 27일 시작한 노치아나는 매주 수요일 총 20회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 기간 동안 노치아나에 참여한 노들야학 학생들은 보치아 실력을 키우고, 지역사회에 장애인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할 겁니다. 집이나 시설에 처박혀 주는 밥이나 먹는 삶이라는 인식을 깨고, 그곳을 박차고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치아를 통해 보여줄 겁니다. 노치아나의 실력은 사실 그리 좋지 않습니다. 작년 한 해 보치아 대회에 나가 거둔 최고 성적은 노들이 주최한 경기에서 2등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140년이 넘는 메이저리그 야구 역사에서 지금까지 통용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Nice Guy Finish last. 번역하자면, 착하면 꼴찌라는 말입니다. 감독들은 경기 전 선수들의 투쟁심을 높이기 위해 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이사회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잘못 된 것에는 성내고 판지거는 삶이 경기에서도 세상에서도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마도 노치아나의 '노'자는 노들의 노라는 말과 성별 노(怒)의 '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뜻을 놓치지 않고 남은 노들보치아교실을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치아나! 농치않아~!!





# 센터관의 독립과 이사, 그 새로운 출발점에서

서기현

IT업계의 비장애인들 틈바구니에서  
개고생하다 장판에 들어와 굴러먹은 지 어언  
15여 년. 현재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에서  
소장으로 일하며, 오로지 주동아리 하나로  
버티는 중.



공사전



띠로띠로리~ 띠로띠로리~ “아, 예... 좋은 물건  
이 있다고요? 어딘데요? 아... 종암경찰서 맞은  
편이요? 예예, 거기 어딘지 알아요. 예, 그럼 거  
기에서 오후에 뵙겠습니다.” 새 사무실을 얻으  
려고 두 달째 성북구 일대를 살살이 뒤지던 어느  
날, 일주일 전에 방문했던 부동산에서 반가운 연  
락이 왔다. 좋은 사무실이 나왔다는 소식이었다.

작년에 하월곡동에서 동소문동으로 임시로  
이사를 했던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작년 9  
월에 사단법인 노들과 함께 이사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불발되고 사무실을 함께 쓰던 사  
단법인 노들의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은 동승동  
유리빌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도 성북구에 따로 사무실을 얻어야만 하는 상황  
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가 얻으려는 사무실은 일단 활동가 9명  
(활동보조인 3명 포함)이 일할 수 있는 면적에  
보증금 및 임대료가 저렴하고, 1층이거나 휠체

어가 드나들 수 있게 큰 승강기가 있어야 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어야 하는 그런 소박한(?) 조건을 충  
족시켜야 했다.

우리는 성북구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활동가 몇 명이 구역을 나누어 올해 1월부터 두  
달 넘게 꾸준히 부동산을 방문해 사무실을 알아  
봤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조건의 사무실은  
구하기가 어려웠다. 부동산의 첫 마디는 ‘그런  
조건의 사무실은 성북구에 없다’였다. 몇몇 부동  
산에서는 장애인단체라고 하면 대놓고 사무실을  
얻기 힘들 거라고 하는 곳도 있었고, 심지어는  
전동휠체어를 보고 아예 문을 안 열어 주는 곳도  
있었다. 하여튼 대부분의 부동산에서 소개해 준  
사무실은 승강기가 있으면 화장실이 좁고, 화장  
실이 넓으면 임대료가 비싸고, 임대료가 싸면 사  
무실 크기가 작고, 사무실 크기가 적당하면 승  
강기가 없고, 뭐 때면 그런 식이었다. 결론적으



공사후

그 과정에서 한 장애인 활동가는 전철역이 너무 멀어 걸어 다니기가 힘들 것 같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사무실 구하는 것을 미룰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그 1층 사무실로의 이사를 센터 활동가들과 함께 결정했다.

이사가 결정되고 나서 집 주인과 만나 계약을 하고, 편의시설과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간판 달고 하는 과정을 겪으며 힘들기도 하고 자질구레한 다툼도 있었다. 또한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걱정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드디어 자립생활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생각에 설레는 것이 사실이다.

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넉넉하게 낼 수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우리도 사단법인 노들도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여서, 한정된 돈을 가지고 원하는 조건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항상 나중을 기약하며 연락을 기다렸다. 그렇게 기존 사무실의 계약 만료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던 어느 날 부동산에서 좋은 매물이 있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무실이기를 기대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소개해 준 곳은 기존 사무실이 위치한 한성대입구역에서 두 정거장 더 올라간 길음역 근처였다. 역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했다. 부동산 사장님의 설명대로 가는 길은 꽤 험난했다. 길음역 환승 주차장 근처의 승강기로 나와서 미아리 집장촌을 지나 내부순환로 아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그 오른쪽에는 삭막하게도 방음벽이 높고 길게 세워져 있었다. 고

가도로와 방음벽 사이에서 꽤 적막함을 느꼈다. 그렇게 10분정도 더 갔을까, 아파트 방음벽이 끝나고 상가가 나오고 골목이 나오고 조금 지나서 고물상도 보였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면서 순간적으로 스산한(?) 기운이 느껴져 어느 빈 건물을 보게 되었고, 마침 유리문 앞에 붙어 있는 ‘임대’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다.

“사장님 여기도 임대 하나요? 1층이라서 좋은 것 같은데, 턱도 없고...”

“여기도 가능하긴 한데, 제가 이야기 했던 곳 먼저 가 보고 들리죠. 지금 가실 곳이 더 좋아요.ㅋ”

결국 먼저 소개시켜준 사무실로 향하는데 못내 아쉬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렇게 소개받은 사무실은 좋긴 하였으나 임대료가 너무 비쌌고, 사무실 주인은 장애인단체가 들어올 거라고 하자 태도가 돌변했다. 그래서 ‘여기도 아

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뒤돌아서는 순간, 아까 보았던 그 허름한 1층 공간이 생각났다.

“아까 그곳도 임대 가능하다고 했죠? 지금 가보는 것도 가능한가요?”

“아, 거기는 1년 6개월 정도 비어 있던 곳인데... 한번 가보죠, 뭐.”

씩 내켜하는 표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물상 옆 사무실을 그 사장님 안내에 따라 볼 수 있었다. 늦게나마 둘러보면서 무엇보다 맘에 들었던 것은 1층에 턱이 없다는 것과 임대료가 싸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지하철역과 조금 멀다는 것, 그리고 새롭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했다. 하지만 이정도 가격에 이만한 접근성, 이만한 크기의 사무실을 앞으로는 구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더군다나 기존 사무실의 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빨리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전에는 없었던 우리만의 프로그램실과 상담실이 생겼고, 창고와 부엌도 생겼고, 넓은 화장실도 있다. 사무 공간 자체는 좀 협소한 감이 있지만 앞서 이야기한 장점이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제 이사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언제 정리가 끝나나’라는 자조 섞인 투덜거림도 많았지만, 천천히 꾸준히 정리하다 보니 어느 정도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 기쁘다.

이번 이사는 우리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의 완전한 독립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센터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동시에 존재한다. 5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 이번 이사가 어떤 도약의 계기가 될지 사뭇 기대가 된다. 우리는 이미 그 새로운 출발점에서 있다.:



# 수연 언니 외박기

김지윤

수연 언니 활동보조인, 청솔1반 담임, 낮 수업 강사, '아싸클럽' 및 '내 몸 찾기' 모임 및 '노들인문학세미나' 열혈 회원, 무엇보다 교사회의 뒤풀이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노들야학 덕후 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들장애인야학 수연 언니의 활동보조인 김지윤입니다. 『노들바람』에는 신입 교사 소개 글을 쓴 이후 두 번째 기고를 하게 되었네요. 저는 수연 언니의 활동보조인이자 야학에서 세 학기 째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수연 언니는 야학 낮 수업(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보조 강사를 하면서 좀 더 자주 보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활동보조까지 하게 되었네요.

애독하고 있는 『노들바람』에 글까지 쓰게 되니, 언니와 저의 인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언니와 제가 '노들'이라는 공동체에 이렇게 같은 시기에 와서 만나게 된 것만 해도 실로 놀라운 일인데, 30여명 교사와 90여명 학생 중 활동보조인과 이용자로 함께하게 되다니! 우리는 전생에 옷깃을 엄청나게 부딪쳤나 봅니다.

활동보조인을 시작한 것은 지난 6월로 이제 약 8개월이 되어 가는데, 그 기간 동안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언니와 제가 예전보다 훨씬 밀접해진 관계에서 쌓은 여러 추억들도 그렇지만, 야학 차원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언니와 저에게 적잖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저도 언니도 각자의 삶, 우리의 만남, 정체성 등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단연 언니의 외박! 아직 그만큼은 못살아 봤기에, 37년의 인생을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언니가 외박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는 것은 저에게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외박은 그러니까 '부모' 없이 친구들이랑 유희를 즐기며 밤을 공유해 재밌게 노는 것이 되겠지요.

학창 시절에 부모님, 특히 아버지의 엄청난 감시와 통제 아래 억압받고 살았던 저는 스무 살을 기점으로 인생의 대전환을 맞게 되는데, 거기서 얻은 '자유'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억눌림이 워낙 심했던 탓도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떨어짐—부모님은 안동에, 나는 서울에—을 통해 제 인생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자유가 찾아왔고, 저는 이때부터 비로소 진정한 자아 찾기의 즐거운 여정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연 언니가 처한 상황은 나의 참혹했던 옛 경험과 감정들을 떠올리게 했고, 어떻게든 언니가 부모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언니가 익히 보여준 '부모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갈망과 절실함이 강한 에너지로 작용함은 물론이었고, 우리의 이러한 욕구들은 다소간의 성향 차

이를 가진 우리 둘을 더욱 빨리 결합하게 해준 매개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러저러한 상황과 여러 교사들의 각고의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어머님의 오랜 반대를 극복하고, 수연의 '탈집, 체험홈 평원재 입성 프로그램'이 확정,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수연 언니의 외박은 사실 1박이라기보다는 무박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님의 외박 허락을 대대적으로 경축하기 위해 야학 교사들과 언니, 우리들의 '술 파티'가 밤새 이어졌거든요. 언니 활동보조 일을 시작하기 전, 저는 누군가와 1:1의 관계를 맺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그 어떤 일보다 상호간의 호흡과 감정 조절이 중요한 '활동보조'를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엄청났던 게 사실

입니다. 그런데 정말 정말 다행히도 수연 언니와 저에게는 자유에 대한 갈망 이외에도 커다란 공통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술’과 ‘밤에 깨어 있기’를 즐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야학이 주장해 온 ‘약물 치료’에 최적화된 저와 언니는 이를 계기로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외박이 감행되기 이전, 우리 둘은 나름의 사전 준비를 했었는데, 핵심은 귀가 시간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늦춰가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언니와 나는 연극이나 영화를 관람하는 등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주로 낮 수업을 함께 했던 학생 및 교사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지하철 막차를 타고 집에 귀가하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그 다음, 결정적이었던 건 귀가 시간을 미리 통보하지 않고 술을 마셨던 일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기획되었다기보다는 불금에도 장애인콜택시를 대대적으로 늘려주지 않는 정부의 불합리한 방침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 나쁜 제도에 힘입은 성공적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느 때처럼 전화를 하면 한두 시간 내에 당도할 것이라 여겼던 장쑤이, 하필 그날이 ‘금요일’ 밤이라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요인으로 인해 기약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하철은 일찌감치 끊겼고, 어머니는 10분 단위로 전화하시고, (이런 와중에 배터리가 나가 핸드폰을 충전했는데 저와 통화가 되지 않아 어머니가 그 새벽에 온 야학 상근자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불상사까지. 15분 남짓한 충전 시간 동안 부재중 전화가 10통도 넘게!) 시계는 일찌감치 12시를 넘어 1시, 2시, 3시를 향해 달려가고,

야학 주변 언니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술집들의 영업시간 종료로 인해 몇 번을 전전해 안착한 ‘피쉬 앤 그릴’은 4시에 역시나 문을 닫는다 하고,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걱정과 함께, 이미 만취해 반쯤 눈이 감긴 언니와 얼굴이 빨개진 저는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에,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역성에 잔뜩 졸아서 하염없이 웃었습니다.

어머님한테 혼날까봐 겁도 나고, 마흔을 넘보는 딸이 집에 안 들어온다고 20통 넘게 전화해 야만 하는 부모의 초조함, 걱정되는 그 ‘마음’ 앞에 우리의 술 마시고 즐길 자유를 당당히 펼치지 못하고 잔뜩 졸아 있는 언니와 저의 처지가 기가 차서 웃었습니다. ‘활보 짤리면 언니가 책임 지쇼’라는 동 술에 취한 대화들이 오가던 중, 주무시는 아버님을 깨워 당장 이쪽으로 보내겠다는 어머니의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로 전화기에 불나는 상황이 종료된 직후, 3시 20분 경 기적적으로 장쑤이 잡혔다는 문자와 전화가 날아들었고, 그렇게 우리의 예기치 못했던 ‘술’ 사건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후 정말 큰 난리가 날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어머니께서는 “일찍 일찍 좀 다녀!”라는 쿨한 멘트 이외에 별다른 말씀은 없으시더라고요. 수연 언니는 어머니를 진짜 많이 닮았습니다. 모녀가 아주 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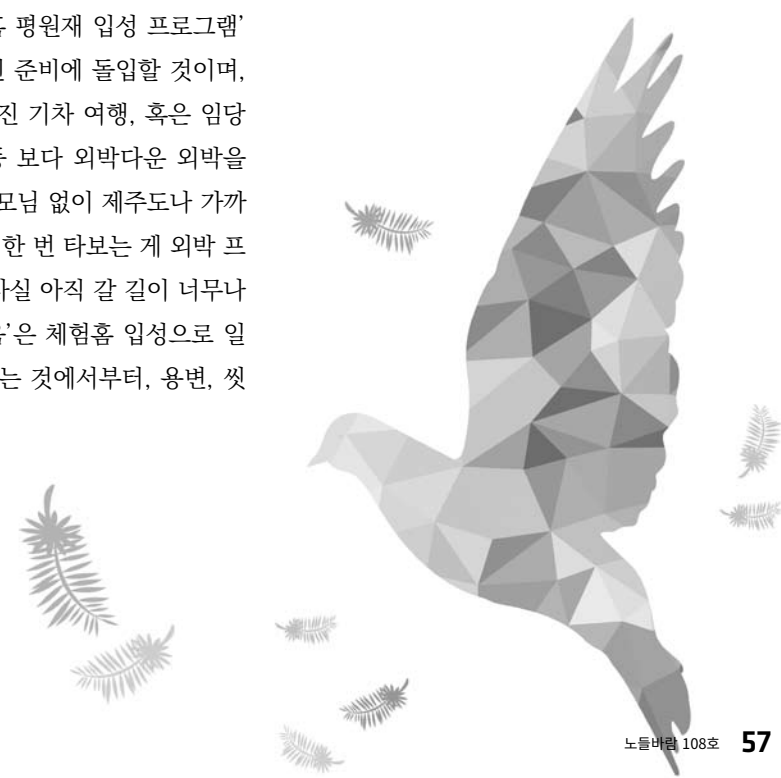
그리고 나서 얼마간의 자신감을 얻은 우리의 외박 거사가 계획되었습니다. 기꺼이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먼저 제안해 주신 김유미 선생님을 필두로, 외박의 ‘죄’를 분산시키고자 거사에 많은 교사들을 끌어들었고, 언니와 저는 만일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해도 무대보로 집에 들어가지 않을 작정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구세주와 같이 등장하신 우리의 고장 샘은 역시나 달랐습니다. 8개의 이유로 외박 불가지론을 펼치시는 어머니를 상대로 진행된 1시간여의 협상 끝에,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어머님 마음의 준비’라는 단 하나의 이유에서 비롯됨을 간파한 고장 선생님께서는 놀랍게도 ‘니들 마음대로 하라’는 어머니의 허락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거사에 동참한 모든 교사들은 기쁨에 환호를 내지르며, 수연 해방 만세를 부르며, 아주 의기양양하게 아버님이 손수 운전해 주시는 야학 봉고에 실려 ‘새천년 호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언니와 저는 그날 새벽, 집주인이었던 유미 샘을 제외한 전원을 초토화시킨 후 유유히 거사 장소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단언컨대, 수연 언니의 외박은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6월 셋째 주로 예정되어 있는 ‘정수연 탈집, 체험홈 평원재 입성 프로그램’은 6월을 맞아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것이며, 이후에는 2박 3일 정동진 기차 여행, 혹은 임당 샘 양양 고향집 방문 등 보다 외박다운 외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 없이 제주도나 가까운 일본 여행 등 비행기 한 번 타보는 게 외박 프로젝트의 종착점인데, 사실 아직 갈 길이 너무나도 멉니다. ‘어머님 마음’은 체험홈 입성으로 일단락되었다 해도, 밥 먹는 것에서부터, 용변, 씻

기 등 아직 물리적으로 산적해 있는 해결 요소들이 많습니다. 어머님도 다 하는데,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무대보 정신을 발휘하면 하나하나 어떻게든 되겠죠,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수연 독립 만세를 외쳐보아요.

근시일 내에 홍대 클럽을 하나 뚫기로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언니와 저 사이에 존재하는 다소간의 성향 차이가 여기서 문제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시끄러운 클럽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사실은 싫...어...합니다. 근데 언니의 반응은 예상은 했지만, 그 이상으로 폭발적이어서 걱정입니다. 클럽은 아직 문턱에도 가지 않았는데, 밤 12시에 홍대 거리를 활보하는 것만으로 눈빛과 몸짓이 달라집니다. 저는 클럽에 가서 진정으로 ‘홍’을 즐길 자신이 없습니다. 수연 언니와 함께 춤의 세계로 빠져드실 분, 우리 조만간 홍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만나요~!





【자립생활을 알려주마】

# 자립생활을 향한 험난한 여정

강미진

요즘은 멍 때릴 시간도 없는, 이래저래 바쁘고 몸이 지쳐있어 다크서클이 턱밑 까지 내려온 미진입니다.



~~~~~  
지난 4월에 자립생활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주택을 구하고 있는  
전세빈 님을 만나  
집을 구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

- 미진 --- 전세자금대출이 되어 축하합니다.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 ▲ 세빈 --- 한편으론 좋고, 한편으론 걱정도 되고...
- 미진 ---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떠한 것들이 좋고, 어떠한 것들이 걱정되나요?
- ▲ 세빈 --- 좋았던 것은 이름을 바꾸고 나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구나, 이런 것(전세주택)도 선정되고. 모든 것이 이름을 바꾼 덕에 잘 된 것 같아요.^^ 걱정되는 것은 전세주택을 기간 내(7월 31일까지)

얻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예전에는 기간 없이 그 년도에만 얻으면 됐는데 올해는 딱 3개월을 주고 구하라고 하니깐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얻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사철이 아니라 집이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장애와 집을 맞춰서 구해야 하고, 지원해 주는 조건들이 까다롭기도 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구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이 돼요.

### 전세자금대출 지원 조건

- 지원 금액 최대 8천 5백만 원
- 2016년 7월 31일까지 집을 구해야 함(구하지 못하면 대기자 지원 받게 됨).
- 전세권설정 or 전세권보험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지만 둘 중 하나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함.
- 근린생활시설(상가건물)은 불법건축물이라 계약할 수 없음.
- 월세 보증금은 지원 불가! 오로지 전세여야만 지원 가능함.

- 미진 --- 전세자금 대출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게 되었어요?
- ▲ 세빈 --- 연초부터 미진 씨(자립생활주택 담당자)가 다했잖아요. ㅎㅎ 얼굴만 보면, 공지 뜨면 바로 알려달라고. 그래서 2월 말에 공지가 떴다는 것을 듣자마자 신청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공지는 2월 말에 나오는데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코디네이터에게만 정

보를 제공해줍니다. 4월에 면접을 봤는데 6명이 면접대상자였고, 그중 저는 마지막으로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면접을 보고 나서 미진 씨에게 잘 못 봤다고,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 미진 --- 저도 그때 안 될 줄 알았어요. 언니가 의기소침해 있어서 정말 못 봤나보다 했죠.
- ▲ 세빈 --- 심사위원들이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거

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 미진 --- 그럼 지원받게 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좋았겠네요.
- ▲ 세빈 --- 네, 그때부터 주택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너무 신났죠. 그런데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던 주택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했듯이 너무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이죠.
- 미진 ---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 ▲ 세빈 --- 아무래도 기간, 그리고 돈에 맞춰서 방을 얻어야 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꼭 전세여야만 하니깐, 반전세도 되면 좋은데 조건들이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조건들이라 함은 근린생활주택은 계약 불가, 전세권설정은 집주인이 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반전세는 많이 나오는데 전세가 없어요. 제가 대출이 확정된 초기에 등록해 놓은 부동산에서 전화는 많이 오는데, 이러한 조건 때문에 모두 안 된다고 거절해요.

•미진 ---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춘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담당자로서 알아보고 있기는 한데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자립생활주택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이 3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자립을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세빈 --- 센터에서는 자립생활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자립생활주택 나형으로 전환을 고려해 보라고 했지만, 지금 성북구에서 받고 있는 활동지원 150시간이 성북구를 벗어나게 되면 지원이 불가능하고, 성북구 내에 나형이 있기는 하지만 전동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형으로 전환하려면 다른 구로 가야하는 상황인거



죠. 그리고 나형의 주변 환경도 문제예요. 전부 집값이 싼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금 주로 활동하고 있는 노들과의 거리도 무시를 못하고, 그곳에서 적응하는 문제도 있어요. 더군다나 나형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기간 7년 중 남은 기간이 3년이라 다시 집을 알아봐야 하는 문제도 있어, 되도록이면 이번 기회에 제가 살고 싶은 곳에서 완전히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미진 --- 그래요. 언니의 상황과 자립생활주택의 문제점을 알고는 있었지만 입주자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들어보니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또 다른 문제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빈 --- 자립생활주택에서 살면 꼭 참여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몸이 아플 때는 나가고 싶어도 나가질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나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물리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하고, 안 가면 몸이 더 굳어진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미진 --- 집단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약속을 정해서 가야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개별 일정에 일일이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장애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요. 언니가 완전히 자립을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그렇고, 온전히 혼자 살게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세빈 --- 집을 예쁘게 꾸며보고 싶고, 조용한 공간을 원해요. 웬만한 살림살이들은 다 있으니 그릇이나 컵을 내 스타일에 맞게 사서 사용해보고 싶어요. 지금도 구입은 할 수 있는데,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배치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시간의 제약이나 성별 구분 없이 초대해서 술도 마시고 밤새 수다도 떨고 싶어요. 자립생활주택이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기는 하지만 공동생활 공간이라서 제약이 있고, 사람들을 편한 공간에서 만나고 싶을 때는 밖에 나가서 만나야 하니까요. 그리고 남자 친구를 초대하고 싶어도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혼자 살게 되면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요. 그리고 늦게 들어오고 싶을 때는 늦게 들어오고도 싶어요. 자립생활주택에서 살 때에는 아무

래도 눈치가 보이거든요. 늦게 들어오면 사람들이 걱정하고 시끄럽게 하니깐, 사람들에게 비행 처녀(?)로 비칠까 봐 두려웠어요.ㅋㅋㅋ

•미진 ---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자립생활을 선택했으니 일탈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자립생활을 하고 싶은 시설거주 장애인이나 자립생활주택 입주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세빈 --- 우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몸이 약하다보니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돈도 빨리 모으고, 자립생활을 하고 싶을 때 원하는 공간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진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빈 --- 자립생활을 생각하고 있는 장애인이라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해요. 제가 몸이 약하다보니 돈이 약값으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장애도 관련이 있어요. 저는 몸이 뻠치는 특성이 있어서 보톡스를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은 정기적으로 맞아야 하고, 게다가 보험 적용도 안 되

는 약품이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잃으면 자립생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되거나 전세 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갖고 있는 돈과 장애 상태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신청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저는 8,500만원이라는 돈만 있으면 집을 빨리 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집값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ㅋㅋ

자립생활을 꿈꾸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지요. 세빈 씨랑 대화를 나누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이 끝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자립생활의 계획과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설에서는 그런 것들을 의존적이게 만들어서 스스로 할 수 없게 하지만 자립생활주택에서는 그런 기회가 있고, 마침내 세빈 씨는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우리 모두 세빈 씨에게 자립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다. 파이팅~!



【나는 활동보조인입니다】

# 익숙해지는 시간

≡ 남다영

노들야학에 다니고 있는 최영은 언니와 일주일에 3일을 함께 지내고 있다. 어린 활동보조인을 찾은 영은 언니 덕분에 요리 초짜에 집안일도 팍이지만 덜컥 활동보조인이 되어 서로에게 길들여져(?) 가는 중이다.^^



처음에 활동보조를 하게 된 이유는 간단했다.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급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여 활동보조 일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너무 가볍고 쉽게 생각했던 것일까? 일을 시작하면서 바로 고민이 생겼다. 바로 요리! 그전에는 요리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데다가 학교에 다닐 때는 기숙사에서 매 끼니를 사먹

장애인의 삶은  
내가 생각한 것만큼  
무겁지 않았고  
위험천만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이  
언니에게도  
언니의 일상이  
있을 뿐이었다.

어 요리를 접할 일이 없었다. 그런 내가 활동보조를 하면서 요리를 하게 되니 요리라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재료의 맛만 느껴졌고, 심지어 커피도 제대로 탈 줄 몰라 우유를 왕창 부었다가 그대로 버린 적도 있었다.

그래서 초기에 영은 언니는 종종 나에게 “넌 주방이랑은 거리가 먼 것 같아”, “넌 요리만 빼고 다 잘하는 것 같아”라고 한마디씩 날려줬다. (언니는 주로 메모장으로 나에게 이야기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머쓱해져서 “언니! 100일만 기다려봐, 팬찮아질 거야~”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활동보조를 시작하지 100일이 훌쩍 지나 벌써 5개월이 다 되어간다. 안타깝게도 나의 요리 실력은 5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생겼다. 우선 내가 요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요리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양념은 뭘 넣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제는 아주 가끔(!) 칭찬받기도 하고 한 끼 정도는 눈치껏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영은 언니와 나의 관계도 내가 요리에 익숙해지는 과정과 비슷한 것 같다. 처음에 활동보조교육을 받을 때는 이용자의 안전이 나에게 의해 좌우되는 것 같아 막중한 책임감이 들었고 부담스럽기도 했다. 거기다 ‘1:1로 계속 붙어있는데 둘이서 친해지기는커녕 어색해하면 어찌지?’라는 걱정부터 시작해서 ‘나 때문에 다치면 어찌지?’ 등등 별의별 걱정이 다 들었다. 하지만 그 걱정들은 차츰 사라졌다. 해보지 않은 일이라 서툴렀을 뿐이지,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졌다.

그리고 언니도 그저 나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 나처럼 그냥 늦잠을 자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하고, 가고 싶은 곳은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고, 사소한 것에도 웃음을 잘 터트리는 그런 사람.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하는 건 맞지만, 장애인의 삶은 내가 생각한 것만큼 무겁지 않았고 위험천만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이 언니에게도 언니의 일상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언니에게 디딤돌이 되어 언니가 더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보면 세상을 향해 조금 더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는 게 활동보조인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

# 노들야학 후원마당 '밥상이 나르샤'를 마치고

한혜선

오랜만에 국어수업을 맡아 학생들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즐겁습니다. 수업시간에 제 말은 좀 더 즐겨볼라 합니다. 상근을 하지만 일보다는 노는 것과 술자리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제주도에서 2년을 쉬고 올라와서 제일 반갑고 놀라웠던 건 무엇보다 노들의 급식이었습니다. 그동안 노들에서 밥 문제가 얼마나 안타깝고 뜨거운 주제였는지 잘 알기에, 북적거리며 밥 먹는 풍경에 적잖이 놀랐고, 그 어려운 일을 노들이 해냈구나 하는 마음에 눈물이 다 날 뻔 했습니다.

하지만 노들의 밥상은 여전히 찌글보글 복잡하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렵게 시작한 노들의 급식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몸을 써야 하지만, 급식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단위마다 다 달라 쉽지 않습니다. 밥과 반찬이 많이 남아서 아깝게 버려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고, 그러다보니 뒷장에 섰다는 이유로 밥과 반찬이 모자라 돌아서야 할 때도 있고, 누군가는 툭 던져진 말에 서럽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서럽다는 말에 또 서운하고.

이렇게 밥상을 둘러싼 소소한 사연들은 끊임이 없지만, 여전히 노들의 급식은 너무나 좋습니

다. 이제는 더 이상 밥 먹듯이 밥을 굶지 않아도 되고, '밥 먹었어요?'라는 인사도 맘 놓고 할 수 있고, 죄책감 없이 밥을 먹을 수 있고, 급식시간이면 온통 정신없이 북적거리는 풍경으로 인해 '불편한 복도'가 '평화로운 복도'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밥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소한 문



제들은 그동안 노들이 해왔던 대로 천천히, 지혜롭게 서로를 다독이며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보다 노들 급식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걱정거리는 점점 쌓여만 가는 적자 문제입니다. 대부분 적은 수급비를 쪼개고 쪼개 한 달을 사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밥값을 내리고 내려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천 원, 이천 원으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아니 우리 노들에서도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의 열망을 담아 올해에도 어김없이 후원주점을 열었습니다. 3년째 주제는 '급식비 마련'입니다. 노들야학만이 아니라 노들 단위 전체가 함께 하는 '후원마당(주점, 바자회, 홍보부스)'이란 이름을 내걸고, 일찌감치 티켓판매에 돌입했습니다. 매년 티켓판매의 어려움을 호소하던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무상급식의 열망이 컸는지, 고장 샴의 다그침이 그 어느 때보다 컸는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노들의 급식을 얘기하고, 티켓을 내미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년에 비해 티켓 판매도 많이 이루어지고, 후원마당 당일에도 낮부터 찾아주신 분들로 꽉 들어차 정신이 없었습니다. 주점이 열리는 주차장 바깥 천막에서는 사단법인 노들이 준비한 바자회도 열리고, 노들센터, 센터판도 홍보부스를 열어 열기를 더했습니다. 급기야 6시가 되기도 전에 안주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대량으로 추가 장을 보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들야학 무상급식을 위해 정기 후원 신청도 해주셨습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헌신적으로 수고해준 노들 사람들과, 잊지 않고 찾아주신 후원인들로 인해 노들야학 무상급식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들야학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더 힘을 내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세월호 참사 2주기 '기억식'과 '진실을 향한 걸음'

≡≡≡ 박준호

전(前) 노들야학 상근자



2014년 4월 16일 아침, 나는 노들장애인야학의 학생 및 교사들과 함께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주관하는 문화제 공연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집을 나서기 전 잠깐 뉴스를 보다가 제주도로 가는 배가 좌초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집을 나선 이후 탑승객 전원이 구조되었다는 오보가 전해졌고, 배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구조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밤늦게 문화제가 끝나고는 노들야학 학생인 송국현 님이 입원해 있던 강남 베스티안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입원해 있었다. 그가 살던 집에 불이 났고, 장애등급이 3급이라는 이유로 활동보조인 없이 혼자 살던 그는 스스로 탈출하지 못해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생명이 꺼져가는 그를 보고 돌아오던 그 시간, 세월호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생명도 송국현의 생명과 같이 사그라지고 있었다. 다음날 송국현 학생은 끝내 사망했고,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은 깊은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느껴야 했다. 그렇지만 또한 사람들은 세월호의 승객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며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희망은 분노와 추모로 바뀌어갔고, 송국현이 그러했듯 많이 이들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2016년 4월 16일 아침 일찍 나는 안산으로 향했다. 세월호 참사 2주년 '기억식'과 '진실을 향한 걸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2년이 지난 이날, 세월호 참사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지만 참사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지금도 세월호 가족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기억식이 진행된 안산 화랑유원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분향을 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기억식을 진행했다. 우리는 약간의 비를 맞으며 행진을 했고 단원고 교실을 돌아본 뒤 서울로 돌아왔다.

5월 17일 강남역 인근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혐오범죄로 살해당했다. 5월 28일에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던 19세의 노동자가 들어오던 전철에 치여 사망했다. 작년 8월 강남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세

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진실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구조적인 문제로, 또 혐오범죄로 죽어가고 있다. 강남역과 구의역에는 이들을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붙었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한다.

세월호를 기억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가방에 노란리본을 달고 여러 집회와 간담회에 참석하고, 또 관련 소식에 관심을 가지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진실 규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할 만큼 했다는 말이 생겼던 걸까. 언제부턴가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나의 관심에서도 멀어져가고 있는 것 같아 부끄럽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하겠다고 다짐해 왔는데, 이런 죽음이 더 이상 없으면 하고 간절히 바란다고 생각해 왔는데, 조금씩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봐야겠다.

# 우리 모두 내성천의 친구가 되어봅시다

## ≡≡≡ 박임당

수유너머N에서 주로 공부하고 있다가 작년 4월의 어느 날 노들야학의 낫 수업과 만나 바람이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는 야학의 신입교사가 되어 보았습니다. (※ 본문의 사진들은 함께 갔던 친구들이 찍은 것과 제가 찍은 것이 섞여 있습니다^^!)

차차차 투쟁 마무리 겸, 420투쟁 선포 겸 여의도에서 일박을 하고 난 다음 날인 3월 27일. 야학 침대에서 단잠에 빠진 한 여인네가 곤히 코를 골던 시각은 아침 8시. 어제와 같이 잤던 우리들은 그날 아침에도 또 야학에 모여 있었다. 휴식을 미루고 있던 유미,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끌려온(?) 진수, 여의도 투쟁 현장에서 '나도 갈래~'하며 급 결합한 증호, 그리고 나 임당. 노들야학과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차 두 대를 몽땅 빌려서 출발한 곳은 다름 아닌 내성천이었다. 도시 재생운동과 생태운동을 하는 리스너터시티의 멤버 박은선의 안내를 받아 우리는 4대강 공사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 예천 지역의 내성천을 답사하고 천변에 호두나무를 심으러 다시 1박 2일의 일정을 나선 것이다. 야학 멤버와 리스너터시티의 은선 외에도 별꼴의 유선, 두물머리에서 활동



우리는 주로  
깎깎대다가 왔는데,  
돌아와서 하게 된  
이야기들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들이었다.



파헤쳐진지 오래인  
모래강이 아직도  
순한 얼굴을 하고는  
우리를 꾸짖고 있는  
것만 같았다.

하는 속속, 알록, 새봄과 빈집의 광대까지 합해서 모두 10명이었다.

사실 쓸 말이 많지는 않다. 첫째 날 나는 내성천의 얇은 수면에 뒹 놓고 발을 담그고 있다가 막걸리를 마시고, 나무를 잠깐 심는 듯하다가 막걸리를 마시고, 봄나물을 캐다가 막걸리를 마시고, 나무 잘 자라라고 고사를 지내다 막걸리를 마시고, 저녁을 해먹으며 반주로 막걸리를 마시고, 부러진 나뭇가지를 가지고 드림캐처를 만들며 막걸리를 마시고, 그리고 밤에도 새벽에도... 그러니까 결국 하루 종일 막걸리를 마시며 보냈다.

둘째 날에는 바지를 한껏 걷어 올리고 내성천에 오래도록 발을 담갔다. 모래톱에 누워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내성천에 살던 동물들 이야기를 듣고, 옥바라지 골목 이야기를 듣고, 일본 애니메이션 「충사(蟲師)」에 나온다는 광맥 이야기도 들었다. 그리고 청국장을 먹고 서울로 올라왔다.

내성천에서 본 것들. 엄청나게 큰 새의 둥지, 발두령을 질주하는 중(中) 사이즈의 멧돼지, 4대강 공사를 반대하는 단 하나 남은 농가의 어르신들, 목이 쉬도록 짚어대는 겁 많은 강아지, 전답 중간에 딱하니 놓인 내성천의 친구들 비닐하



우스, 모래 위 숨구멍을 파면 나오는 반질반질한 제철알, 황새의 발자국, 발바닥이 다 잠기지 않을 정도로 얇기도 퍼렇게 깊기도 하지만 보드랍게 흐르는 순한 강, 거칠게 깎여나가고 있는 모래톱, 그 위의 메마른 풀들.

우리는 주로 깔깔대다가 왔는데, 돌아와서 하게 된 이야기들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들이었다. 파헤쳐진지 오래인 모래강이 아직도 순한 얼굴을 하고는 우리를 꾸짖고 있는 것만 같았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심은 호두나무가 다 자라는 데는 7년, 많게는 10년이 걸린다고 한다. 멀리 보는 싸움이라고,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은선은 이야기했다.

지금 내성천에는 4대강 기록관을 짓기 위해 지울 스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힘쓰고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모여 손수 목재를 대패질하고 오일을 바르고 목재들을 서로 짜 맞추어 벽을 세웠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6월에는 지붕이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모래강과 오래도록 함께 지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더 있을지도 모른다. 우선 페이스북 그룹에서 '내성천의 친구들'로 분해 '좋아요'를 눌러 볼 수도 있겠다.



## 도대체 부정수급이 무어란 말이나

우리를 부정수급자로 몰아가다니, 뽀이 난다!!

조은별

노들야학과 사랑에 빠져 수년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수업 시간에 헛소리하는 것이 낙이다.  
아플수록 술을 마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술 총량의 법칙을 믿지 않는다.

김포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활동보조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의 소환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이 한 문장만 보서는 무슨 일인가 감도 잡히지 않지만, 그들이 소환당한 이유는 바로 '활동보조서비스 부정수급'이다. 부정수급이라니? 무엇을 말인가? 김포경찰서는 중개기관과 시청에 요청해 활동보조인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600여건을 입수했다고 한다. 그리고 조사 후 3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자 사람들의 슬픈 증언이 이어졌다.

“나는 여자지만 남성의 활동보조를 한다. 경찰은 내가 여성이고 이용자가 남성인데 신변처리를 어떻게 다 하나면서 나를 의심했다. 나는 그동안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생각해왔고, 한 센터장과의 관계도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였지만 단 한 번도 '남성과 여성'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경찰의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웠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활동보조인이 어디에 다녀왔는지 언제 바우처 결제를 했는지 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왜 활동보조를 하고 있을 시간에 대구까지 다녀왔냐'라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 이용자와 함께 대구에 다녀온 것을 간과하고 말이다. 또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활동보조를 조사하면서 '이용자의 엄마가 그렇게 바쁘면 활동보조서비스를 사용할 게 아니라 이용자를 시설에 보내야하는 것이 아니냐'라고도 했다.

김포경찰서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아마 활동보조서비스는 부정수급 투성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장애인이 김포에서 대구까지 장거리를 이동한다는 상상은 해본 적도 없고, 장애인을 보



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투철해 제대로 된 보호자가 없으면 시설로 보내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진짜 무서운 건 김포경찰서만의 생각이 아니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부터 시작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까지 골고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한 활동보조인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부정수급 소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비가 와서 함께 병원에 약을 받으러 갈 수 없어서 이용자가 시키는 대로 혼자 약 타러 다녀왔

다. 그랬더니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았다. 바우처 결제를 종료하고 다녀오라는데, 일 하러 다녀오는데 왜 그렇게 하나? 자기네들은 담배 피러 갈 때 퇴근하고 가나?”

우리가 한강 다리를 기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만들 때에는 장애인이 김포에서 대구까지도 자유롭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고, 가족의 보호 없이도 시설에 가지 않고 혼자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다.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를 의심할까? 김포

경찰서는 도대체 왜 600여 건의 개인정보를 입수했을까? 바로 그것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정 누수 방지 대책과 관련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부정수급자를 색출하겠다고 여러 차례 난동을 피운 바 있다. 대선 후보 때에는 ‘맞춤형 복지’를 외치던 정책은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세우고 부정수급 파파라치를 만드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에 사용하는 돈이 아까운 거다. 주던 거 이유 없이 도로 빼앗을 수는 없으니 생각해낸 것이 ‘부정수급’의 굴레를 씌워서 야비하게 돈을 아끼는 것이다. 그러면 시민들에게는 ‘부정으로 새어나가는 세금을 막았다’라고 자랑할 수 있고 복지 예산도 줄일 수 있으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런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면서 김포경찰서뿐 아니라 인천경찰서도 이미 2014년에 1,000여건의 활동보조인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입수했었고, 사회보장정보원도 수시로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에게 전화를 돌려 감시를 하는 거다. 누가 부정수급을 저지르고 있다고 신고도 안했는데, ‘그냥 아무나 로또처럼 랜덤으로 걸러라’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감시하는 거다. 정말 소름이 돋는다. 이걸 활동보조서비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위에서 말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부정수급자 색출 정책에 맞춰서 공권력이 한국을 이 잡듯이 뒤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그렇고 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실제로 복지 사업의 소위 부정 수급률은 대부분 1%도 되지 않는다.

최근 전북 남원의 한 시설에서 직원들이 거주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남원평화의집전국대책위원회는 ‘평화의 집’ 시설

에서 발생한 거주인 폭행 사건에 대해 해당 시설의 소유 법인인 한기장사회복지재단의 사과와 시설 폐쇄, 기부채납을 약속받았다. 아직도 시설비리와 인권 침해 사건이 비밀비재하다. 박근혜 정부는 진정으로 복지 재정 누수가 걱정된다면 이런 시설들을 한번 들여다보라. 정부가 이런 시설들은 장애인단체들이 찾아가서 해결할 때까지 손도 쓰지 않으면서, 고작 개개인이 바우처 카드를 언제 굶나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열불이 난다. 우리를 감시할 바에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감시해라. 복지부정이라는 어쭙잖은 말로 우리들이 피땀 흘려 쟁취한 권리들을 모욕하지 말라.

우리 부정수급자라는 말에 떨지 말자. 활동보조인은 이것 때문에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러지 말자. 그 떨림을 정부에 쏟아. 우리는 부정수급자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놓은 제도를 당연히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자.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는 더 저항할 것이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 본문에 나오는 증언들은 『비마이너』에서 인용했습니다. 『비마이너』에서 ‘김포경찰서’를 검색하면 인용에 사용된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김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건이 궁금하시다면 더욱 『비마이너』를 주시해주세요.



【오 그대는 아름다운 후원인】

# 탈시설 장애인의 벗, 이종각 선생님을 추억하며

조사랑

노들야학 휴직교사이자 전 상근활동가.  
2009년부터 평원재 담당자로 평원재에서 먹고 자고 기거했고,  
탈시설하는 사람의 편에서 싸우는 든든한 벗이 되고 싶은 사람.



평원재의 '재'는 집이라는 뜻으로, 사회복지법인 평원재단에서 지은 건물이다. 평원재단 이사장이신 이종각 선생님은 탈시설을 원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2009년에 이 집을 짓고, 자립정착금과 매달 생활금을 지원했다. 평원재에 살았거나 임시 거주했던 사람은 지금까지 27명이다. 그 중 대부분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처음 자립하여 세상 밖으로 나왔던 용기 있는 자립생활 투사들이었고, 지금까지 단 한명도 시설로 되돌아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은 소망을 이루며 살고 있다.

이사장님과 노들야학의 인연은 2001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고, 노들야학의 교사와 학생들도 그 중심에서 활동을 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나도 TV에서 소식을 접하고 기

평원재에서 맨 처음 만났던  
그 모습, 평원재를 짓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들떠보였던,  
맑은 청년의 눈빛에  
미소가 빛났던 그 모습.

이사장님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우리를 지켜봐주세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지낼게요!



역할 정도로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다. 그때 중생원(현 평원재단)이라는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던 이사장님이 노들야학에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한다. 당시 30명 정도 되는 야학 학생들 전부에게 각각 매달 10만원씩 장학금을 주고 싶다고. 데모를 많이 한다는 것이 마이너스였던 것은 맞지만, 또 그 지점 때문에 야학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별난 후원자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것도 매달 엄청난 금액을.

야학 학생들에게 제공된 장학금은 그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청솔반 학생이 모 씨는 그 돈을 모아 평소에 갖고 싶었던 텔레비전도 사고 영화도 볼 수 있었다. 대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후원하는 후원자라면 사진이라도 한 장 찍거나 자신의 좋은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사장님은 좀처럼 모습

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한겨레』신문과 같은 언론이나 노들야학의 홈페이지를 몰래(?) 살펴 보며 우리의 활동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했다. 그리고 노들야학이 정립회관을 나와 마로니에공원 뒤편에 자리를 잡게 되자, 평원재단은 야학 가까운 명륜동 근처에 건물을 지었다. 장애인들이 살면서 불편함을 겪지 않을 만큼의 훌륭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말이다. 평원재 건물에는 이사장님의 사무실과 사택이 함께 있다 보니 한 건물 안에서 서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즐거웠던 일, 힘들었던 일도.

평원재에 사는 사람들은 이사장님에 대한 많은 추억을 쌓아갔다. 이사장님은 우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 원래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는 성격이지만, 한 건물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웃사촌이 되어주셨다. 그 수많은 일들은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그 추억들 안에서 이사장님은 우리에게 든든한 후원인 이상의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였고, 이사장님에게도 우리는 골칫덩어리(?)였던 적도 있지만 이사장님을 행복하게 해드렸으리라 믿는다. 아래는 이종각 이사장님의 추모식 때 나와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다. 우리의 소소하고도 소중한 추억들이다.

“이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1층에 살았던 남옥 언니는 시설을 나와서도 자신을 괴롭혔던 시설장이 나오는 악몽을 꾸었어요. 남옥 언니는 이사장님을 보며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매일 만날 때마다 짓궂은 장난을 해도 받아주시고 재밌게 해주셨어요.” (남옥 언니는 이사장님 장

례식장에서 정말 너무 많이 슬퍼했다.)

“명절마다 항상 과일을 선물로 주셨는데, 한번은 비싼 한우 세트를 선물해주셔서 옥상에서 고기파티를 했어요. 같이 먹자고 이사장님을 불렀는데, 이사장님이 쑥스러우신지 거절을 하셨어요. 휠체어를 타고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옥상까지 다닐 수 있게 만든 이유가 이런 거였다고 기뻐하셨어요.”

“눈이 오면 전동휠체어가 미끄러질까봐 새벽부터 눈을 치우셨어요. 한번은 도와드리려고 일찍 나갔는데 벌써 다 치우셨더라고요.”

“2층 동림이 형이 눈 수술할 때 서울대병원에 문병을 오셨어요. 사람들이 아프면 어디든 문병을 자주 오시곤 했어요.”

“매년 백두산 사진이 멋지게 찍힌 달력을 선물해주셨는데 별거 아닌 거 같아도 그 달력을 안 주시면 서운했어요. 뭔가 연중행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1층 작은 정원의 감나무에 감이 열리거나 매실이 열리면 따서 주셨어요. 술 담가 먹으라고도 하시고.”

“휠체어가 계단 쪽으로 넘어지지 말라고 계단 중간에 기둥을 세워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간섭은 일체 없으셨고, 그 대신 사람들의 일상과 자립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늘 지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사 가는 날 조용히 음료수를 대접하고는 나가서 잘 살라고 이별했지요. 진심으로 사람들의 행복을 빌어주셨어요. 원래는 선물을 잘 받지 않으시는데, 기옥 언니가 나가면서 이사장님 양말을 선물했고 너무 기뻐하며 받으셨어요.”

어찌 보면 시설에서 나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하고 두려움이 앞섰던 사람들에게 세상 밖은 살 만한 곳이라는 걸 느끼게 해준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 같은 사람. 이사장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였다. 정말 너무 고맙다.

너무나 고마운 분, 우리의 이웃 이종각 이사장님은 불행히도 2015년에 폐암 선고를 받았다. 이

사장님은 암은 아주 초기이고 수술만하면 나을 거라고 우리 모두를 안심시켰다. 우리는 이사장님의 병실에서도 싱글벙글 웃으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요새 눈도 안 좋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좋아하는 책도 잘 못 보겠어. 얼마 전에 김근태 평전을 보는데 첫 장을 넘기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니 멈추지를 않는 거야.” 한동안 이사장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순간 이사장님도 힘드시고 무서우셨겠지,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속상했지만, 이사장님의 말을 믿고 기다렸다.

기대와는 다르게 수술 이후 힘든 항암치료가 시작되었고, 이사장님은 한동안 아예 책을 못 보셨다고 했다. 그리고 그 시절엔 이사장님과의 왕래가 거의 단절되었다. 이사장님은 많이 야위셨고, 우리에게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셨다. 이사장님은 점차 회복하시는 것 같았다. 항암치료도 끝나고 다시 자란 머리와 예전과 같은 체력을 회복하신 걸로 보였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길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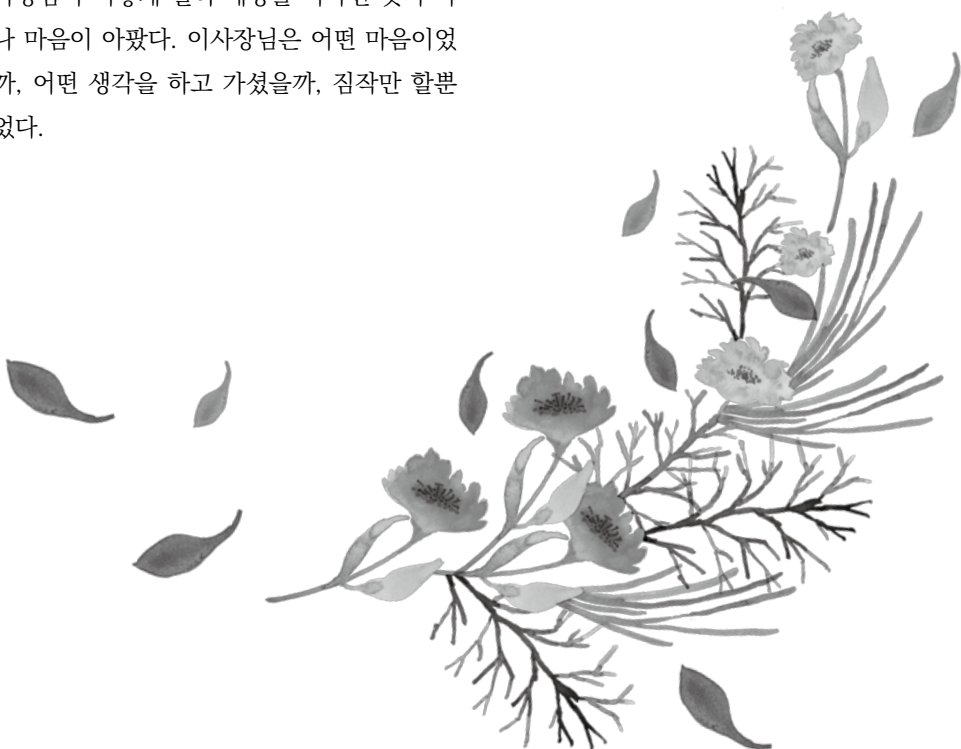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안심할 즈음 불행은 벼락같이 닥쳤다. 얼마 전까지 웃으면서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이사장님의 폐암이 재발했고 이미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셨다. 갑자기 쓰러지신 후 병원에서 이사장님을 뵈었을 때는 기억조차도 희미하셨다. 주변 사람들은 이사장님 문병을 가겠다고 많이 연락이 왔지만, 이사장님의 상태가 너무 불안정했고 안정이 되면 만나는 게 좋겠다고 하셨다. 우리에게 작별할 시간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하신지 채 한 달도 되지 못한 2016년 4월 7일, 함께 동고동락하신 한 이사님



결에서 생을 마감하셨다. 유언과 이후 장례 절차는 한 이사장님께 위임을 하셨다.

이사장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다. 이사장님은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하셨고 장례식도 싫다 하셨지만 이사장님을 잘 보내드리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장님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노들야학 학생들은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이사장님의 얼굴을 영정으로 처음 만났다. 노들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탈시설 장애인들의 벗이었던 이사장님을 그렇게 보내드리게 되었다. 이사장님은 내가 살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 참 맘이 고운 사람이었다. 본인을 괴팍하다고 이야기하셨지만 그건 사실과 다르다. 이사장님은 참 고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이사장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가셨을까, 짐작만 할뿐이었다.

힘든 상념이 계속되다가, 그냥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고운 이사장님의 모습을 간직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모습 그대로 추억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 이사장님을 보내드리는 것이 한결 수월했다. 평원재에서 맨 처음 만났던 그 모습, 평원재를 짓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들떠보였던, 맑은 청년의 눈빛에 미소가 빛났던 그 모습. 누군가에게 엘리베이터를 잡아주던 모습, 누군가에게는 전구를 갈아주는 모습, 우리가 행복했던 그 순간의 모습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이사장님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우리를 지켜봐주세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지낼게요!



2016년 6월  
노들과  
함께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CMS후원인

감광국·강귀화·강남훈·강문형·강미진·강병원·강복원·강복현·강성윤·강수혜·강영미·강영미2  
강유선·강정자·강주성·강현욱·강희관·고경신·고동수·고명희·고승현·고아라·고재현·고정화  
고재현·공명렬·공선화·공승룡·공정욱·곽노근·곽상아·곽성자·구경민·구세나·구수준·구승기  
구정서·구현아·궁경혜·권경숙·권기원·권미경·권민희·권병주·권순만·권순성·권영주·권영진  
권용희·권익재·권진영·권태국·권혁운·권혁은·김가경·김각균·김건욱·김건형·김경숙·김정은  
김경혜·김관희·김근식·김기룡·김기성·김기오·김기호·김남수·김대회·김도경·김도현·김동은  
김동진·김동환·김두경·김명학·김명화·김문주·김문호·김미선·김미성·김미영·김미현·김민  
김민림·김민아·김민영·김민호·김민희·김병식·김보영·김보연·김봉석·김부연·김상성·김선미  
김선아·김선영·김선영2·김선옥·김선화·김선희·김설민·김성미·김성현·김세영·김수경·김수연  
김수영·김수현·김숙아·김승혜·김아람·김애경·김연성·김연수·김연옥·김연희·김영미·김영민  
김영선·김영승·김영환·김영희·김용남·김용성·김용우·김용욱·김용진·김용진2·김우주·김원숙  
김유리·김유미·김윤경·김윤석·김윤자·김윤정·김윤진·김은미·김은정·김이중·김민숙·김재경  
김재양·김재희·김정구·김정민·김정은·김정하·김정현·김종윤·김종호·김종환·김준·김준형  
김준호·김준휘·김지민·김지숙·김지순·김지연·김지영·김지예·김지은·김지현·김진수·김진수2  
김진우·김창배·김창보·김태승·김태연·김태인·김태훈·김판균·김푸른솔·김필순·김한민·김한준  
김현영·김현식·김현영·김현정·김현자·김형배·김형호·김혜미·김혜진·김호진·김홍화·김희재  
김희정·김희찬·김희현·나선영·나해나·남대호·남두형·남지현·남효진·노미경·노상경·노상은  
노영조·노의현·노현택·노혜련·류명욱·류승화·류정숙·류정하·류향희·마미주·맹보영·문건화  
문경희·문상태·문성원·문소리·문예진·문지의·문창배·민혜숙·박경석·박경숙·박경아·박경영  
박경혜·박경화·박계선·박광수·박누리·박다정·박명숙·박민경·박민영·박민우·박보건·박보라  
박상일·박상호·박서희·박선우·박선은·박성욱·박성희·박세단·박세진·박세호·박소영·박승하  
박시백·박애경·박연희·박영민·박영환·박은미·박은정1·박은정2·박임당·박장근·박재국  
박정수·박정숙·박정희·박종진·박종철·박종필·박주원·박준호·박지민·박지영·박진우  
박찬양·박창숙·박철우·박태만·박하순·박현미·박현민·박희희·박홍석·배경원·배덕민·배문섭  
배수자·배승천·배안나·배윤주·배준영·배진숙·배치녀·백미라·백수경·백승혜·백연희·백재선  
서기현·서남교·서명순·서명아·서미선·서민영·서민희·서봉경·서유나·서은수·서정록·서정음  
서주형·석지윤·선혜란·성정현·성창기·성희욱·손동각·손성권·손은경·손주영·손준희·손희경  
송기호·송무림·송병준·송상훈·송선화·송영란·송우영·송종호·송창국·송현정·신미숙·신복순  
신봉준·신석호·신수정1·신수정2·신숙희·신순영·신연실·신영근·신원미·신은희·신익식·신진  
신현훈·심귀환·심미경·심선진·심은선·심이영·심인섭·심정구·안경모·안남희·안문필·안바라  
안병호·안석호·안선경·안소진·안영춘·안인숙·안정은·안종녀·안준희·안향미·안희옥·양무현  
양석주·양수경·양수정·양은근·양인순·양정화·양현준·여수진·엄재균·엄주철·여준민·연금순  
오미영·오보람·오원주·오정자·오정희·오지은·오진희·옥샘·우시우·원성현·유남숙·유문수  
유보배·유애리·유영순·유창재·윤경훈·윤기범·윤길중·윤동구·윤명섭·윤미선·윤봉섭·윤석규  
윤선기·윤승용·윤승원·윤이용·윤정미·윤정민·윤정은·윤정임·윤종술·윤준서·윤호진·윤화숙  
윤희·이강수·이건희·이경덕·이경아·이경훈1·이경훈2·이경희·이광만·이광석·이광재·이근희  
이금희·이금희2·이기순·이기훈·이동은·이동진·이리나·이미나·이미리암·이미영·이미영2  
이미정·이범민·이비함·이상원·이석원·이선진·이선희·이성호·이수연·이수현·이순웅·이승민  
이승범·이승현·이일찬·이연옥·이연주·이영경·이영란·이원진·이유미·이유진·이윤웅·이윤주  
이윤지·이은숙·이은정2·이장우·이재령·이재승·이정실·이정은·이제성·이제현·이종국  
이종란·이종실·이주오·이주욱·이준범·이지연·이지연2·이지영·이지은·이지은2·이지환·이진섭  
이진실·이진영·이진영2·이진주·이진희·이찬미·이철우·이태곤·이한호·이현명·이현숙·이현아  
이현진·이형록·이호연·이호중·이희국·이효정·임광열·임나미·임덕삼·임동근·임영희·임원택  
임은영·임은정·임인자·임자운·임주현·임춘학·임태종·임혜숙·장경주·장근영·장명희·장미희  
장상순·장선영·장선정·장성권·장성아·장옥란·장원·장정환·장지희·장정완·장혜미·장효정  
전경래·전권세·전대진·전미라·전미영·전민숙·전상우·전성자·전옥·정규명·정다운·정대수  
정대훈·정명진·정미란·정민구·정병순·정상업·정상욱·정선욱·정송아·정수연·정영란·정영석

## 후원방법 안내

### 1 후원계좌 안내

- **노들장애인야학**  
국민은행 488401-01-202282  
신한은행 110-025-510184  
농협 029-12-200545  
우리은행 470-07-035448  
하나은행 757-810128-43007  
외환은행 170-19-30457-4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민은행 031601-04-165177
- **장애인문화예술관**  
국민은행 488401-01-202141
- **현수막공장 노란들판**  
우리은행 1005-201-820597

### 2 정기후원

희망하는 일정금액을 기부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CMS(노들로 연락)방식과 직접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방법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3 일시후원

휴대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www.nodeul.or.kr 홈페이지 참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원인의 고마운 나눔이 있기에 노들은 살아갑니다.



정영자·정영호·정용균·정용일·정용훈·정우영·정우중·정우준·정운영·정유경·정유진·정익화  
정재훈·정종권·정종훈·정지영·정진영·정진이·정택용·정현강·정현경·정현진·정혜림·정혜원  
정홍조·정희덕·조경애·조미숙·조미정·조미정2·조사랑·조성남·조성진·조수안·조승하·조아라  
조원일·조윤경·조윤실·조윤정·조은주·조은진·조용현·조재범·조향숙·조혁진·조현경·조현수  
조혜민·조훈·좌동업·좌미경·주기중·주상연·주영은·주용춘·주은아·지덕근·지세진·지함메디테크  
지혜름·진영옥·진영인·차우영·차순정·채이배·채정주·천성호·천영희·최경일·최귀선·최동호  
최미란·최민경·최병희·최보경·최석문·최선아·최승우·최영식·최영은·최우영·최윤경·최윤선  
최은경·최은아·최은정·최정민·최정원·최정은·최정희·최진석·최찬일·최하정·최한별·최현진  
최혜영·표은혜·하경남·하금철·하정자·한남희·한명숙·한영희·한상배·한선희·한성인·한송희  
한양재·한주영·한혜선·한혜원·한희자·허보영·허신형·허영선·허완수·허정일·허진태·허 창  
현영철·현정민·홍도순·홍성미·홍성호·홍송대·홍순희·홍영선·홍영희·홍은진·홍은진·홍주영  
홍진표·홍철기·홍혜리·황무초(무밍)·황성윤·황승미·황정희·황진미·황하연·황혜전·황희준  
(주)머스트투자자문

### 계좌이체 후원인

고명선·공한복·구자숙·김미선·김선심·김용철·김지윤·남완승·류동훈·류승아·박경선·박현규  
사랑의후원금·서금식·송영자·신동길·신디·안선영·안성희·MRM글로벌·오선실·오장환·윤종배  
윤지형·이두혁·이한진·이현숙·이현우·이형욱·정국순·조광배·차명수·최상희·THL·허건·허병권  
황미향·황재숙·희망열차(김낙현)

### <노들로 들어온 선물>

- 3월** • **로맨스조 & 벌꿀** 친구가 농사지는 쌀 한 가마니 / **명필름** 던킨도너츠 김민주 던킨도너츠 / **이음책방(조진석)** 김치 2통, 초코파이와 과자
- 4월** • **은유** 제주산 탕유자차 / **은애** 어머니님 포도 액기스 외 / **양현우** 과일주스 & 빵
- 5월** • **능동중학교 학생들** 손수 그린 예코백 1박스  
**현대기회(한희성)** 각종 문구류 1Box / **정현(에피쿠로스)** 홍삼원 1Box  
**이음책방** 참외 1박스 / **이유진** 참치 & 햄 set 5박스  
**스파인2000** 의약품 1박스 / **외내들영농조합법인** 쌀 60kg
- 6월** • **스파인2000** 풍곡수와 오이소박이  
**능동중학교 학생들** 손수 그린 예코백 1박스(두 번째)  
**기차길 옆 작은학교** 책 4권 / **임진영** 학생들 맛있는 것 드시라고 10만 원 주심(치킨과 피자 맛있게 먹었습니다!^^) / **외내들영농조합법인** 쌀 60kg

### 후원물품 판매 안내

- 『노란들판의 꿈』(홍은전 지음, 봄날의책 펴냄, 12,000원)
- 『지금이 나는 더 행복하다』(박경석 지음, 책으로여는세상 펴냄, 10,000원)
- 매실청(900ml - 20,000원)
- 노들 20주년 사진집(20,000원)